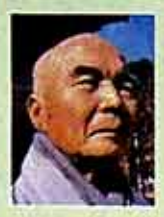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364 호



법석 조대 정공 스님 극락사 조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 받았을 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으로 쉼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화두와 염불삼매는 다르지 않아요. 어떤 방편을 선택하든 100% 몰입해야만 견처를 얻을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최대 규모 · 첫 불교정보화 현황 조사

4월 한달간 1만 2천여 사찰 · 신행단체 대상

종단협 · 불교방송 · 불교TV · 本社 공동

KT 협찬 ·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 텔레비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하는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가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만 2천여 사찰과 신행 단체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전국의 사찰과 신행 단체를 망라해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사무자동화 현황은 물론 인터넷, 이동통신, 위성방송에 대한 이용 현황과 IT 관련 제반 욕구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교계 최초, 최대의 실태조사다. KT(한국통신)가 비용을 협찬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IT 관련 제반 욕구를 정확히 측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교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IT 업체들이 불교계를 주요 시장으로 인식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가 불교계에 진출해 불교관련 IT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태조사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만 2천여 사찰과 단체에 대한 전화설문, 6천여 사찰 단체에 대한 우편 및 온라인 설문, 500여 주요 사찰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사찰과 단체의 컴퓨터 이용 실태와 인터넷 활용도는 물론 이 메일과 무선인터넷, 위성방송의 이용현황까지 다양하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 스님은 1일 불교계의 적극 동참을 권유하는 '담부의 말씀'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5월 중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면에 공개되고 곧바로 백서도 발간된다.

☞관련기사 2 · 3 · 5면

임연태 기자 ysm@buddhap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낙도 포교 … 30명에 장학금 전달

육지와 떨어져 사찰, 서점, 병원도 없는 외딴섬. 그곳에 사는 순수한 심성을 간직한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다가간다.

불교신행단체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 법주사 주지)가 낙도 포교를 위해 창건한 안면도 안면암은 최근 1억원의 기금으로 장학회를 설립, 2일 초중고생 30명에게 처음으로 낙도포교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안면암 장학회(회장 김명순)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초등생



15명, 중학생 10명, 고교생 15명은 이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중생을 위해 회향하겠다"고 부처님 전에 발원하는 기특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고무된 안면암 장학회는 앞으로 장학기금을 대폭 늘려, 장학금 수혜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계에서 낙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그리 많지 않았고, 낙도포교를 위한 장학회가 설립된 것도 처음이어서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의미가 크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장학사업을 통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전국 어느 섬을 가더라도 교회 없는 곳 없고, 주민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됐다.

하지만 불교계는 낙도포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섬에 사찰이 있다 하더라도 꺼리는 스님들로 인해 법회 봉행조차 힘들 지경이다.

'낙도'는 현재 불교계에서 가장 취약한 포교의 사각지대다. 소외되고 외로운 곳일수록 찾아 살펴 부처님 가르침을 펴야 하지 않을까. 교계에서 장학회를 설립, 낙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의미에서다.

최근 법주사 주지 지명 스님 등 구인회 스님들이 동참, 낙도를 순례하며 포교활동을 펼칠 포교선 해왕호(19톤)를 구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낙도 포교사들이 재활용품, 생필품, 기초의약품, 불서 등을 포교선에 싣고 섬에 도착한 뒤 특별법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낙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낙도포교에 원대한 서원이 모아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문의 (041)673-2333.

김원우(취재1부 차장)



생명나무 심어 북한산 되살린다

수경 스님, 고두심, 최열(오른쪽부터) 씨를 비롯한 3000여 명이 식목일을 앞둔 3월 31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로 법맥이 진행중인 송추현장에서 '생명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가지며 산의 소중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동지와 솟대' 퍼포먼스, 북한산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됐다. 북한산= 고영배 기자

개발계획때 자연 · 문화환경 검토

환경부 "영향평가 협의시 불교계 요구 반영" 밝혀

환경부가 개발계획시 자연 문화환경을 고려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역사문화유산보호 지구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불교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큰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3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 이하 공대위)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계종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겠다"며 "각종 개발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및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역사문화유산보호 지구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경남 통영시와 서울시 종로구청, 고속철도 건설기획단 등에도 이와 같은 법령제도 개선 공문을 보냈다.

공대위는 3월 18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요청서를 전달했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지계청정 견성성불 중생교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교시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스님은 2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계청정(持戒淸淨) 견성성불(見性成佛) 중생교화(衆生敎化)'라는 교시를 내리고,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관련인터뷰 3면

스님은 "종단의 입법 행정기관들의 합의와 적법한 법절차를 밟아 사면 복권을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해인통일석가모니불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절집안 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종도들과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청동대불 건립문제는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전스님은 1일 해인사에서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의 예방을 받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제 22대 총무원장

운산스님 16일 취임식

태고종 제 22대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취임법회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운산 총무원장은 화합종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태고종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초파일 봉축 포스터

봉축위원회는 3일 2546년 봉축포스터(사진)를 확정, 각 사찰과 단체에 배포했다. 봉축포스터는 표어가 상단에 배치되고, 연꽃과 연잎을 넣어 '부처님 마음'과 '인류평화'를 표현했다.

김원우 기자

그린벨트 전통사찰 신축 가능

건교부, 각 시 · 군 · 구에 지시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3월 23일 조계종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종교시설의 증축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축면적으로 산정하고, 동일대지 내에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와 관련 각 시 · 군 · 구에서 기존건축물에 연이어 확장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불합리한 법적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설교통부의 회신은 조계종이 최근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가 불허돼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본지 361호 2면기사 참조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초파일 연등

1. 올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켤 때 특별히 기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견성성불 ②가족의 건강 ③취업 · 시험 합격
④조상의 극락왕생 ⑤사업 번창
⑥세계평화 · 남북통일 ⑦기타
2. 등은 몇 개 정도를 켤 계획입니까?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이상

설문 참여: 4월 1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5호 9면에 싣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 추대식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의 종정 추대식을 봉행하오니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46(2002)년 4월 18일 (음 3월 6일)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봉행위원회

○ 증 명 : 서옹, 서암, 월하

○ 고 문 : 관응, 석주, 고송, 도원, 종산, 원명, 범룡, 도천, 원담, 성수, 숭산, 지종, 정천, 녹원, 보성, 지관, 천운, 덕명, 도견, 청화, 활안, 이두, 동춘, 송담

○ 봉행지도위원 : 월주, 혜정, 고산, 월운, 능가, 지유, 초우

○ 봉행자문위원 : 봉주, 우룡, 승원, 운문, 법정, 무진장, 도문, 대일, 등각, 정관, 송월, 정일, 법흥, 지혜, 정무, 암도, 정원, 고봉, 정련, 홍교, 설정, 종하, 현성, 혜산, 혜성, 무산, 백운, 운범

○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정대

○ 봉행부위원장 : 중앙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법규위원장 밀운,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 봉 행 위 원 : 원택, 현고, 성월, 정각, 양산, 종지, 범여, 도현, 능허, 상운, 정호, 선각, 정락, 마근, 현해, 지명, 진허,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원정, 성오, 현문, 법조, 평상, 다정, 종걸, 현봉, 보선, 중원, 법현, 일면, 성파, 원산, 종성, 성주, 태정, 명선, 원융, 현광, 진철, 능혜, 천제, 도법, 범하, 청화, 명진, 정휴, 근일, 종상, 혜창, 법등, 장윤, 지홍, 영배, 영담, 영조, 지현, 성관, 종림, 세영, 도후, 도완, 정념, 원담, 진각, 장곡, 법보, 도각, 수완, 현각, 도공, 지운, 선광, 혜정, 장주, 지광, 탄우, 정인, 석호, 태봉, 설송, 원행, 성오, 화범, 진만, 종삼, 범종, 월우, 대원, 진원, 지광, 지욱, 현응, 향적, 학담, 법안, 정우, 여연, 광조, 원명, 유광, 장적, 무이, 태공, 인묵, 동욱, 원타, 몽산, 원우, 자승, 정만, 초현, 법현, 증진, 장산, 정호, 정암, 종진, 학봉, 선룡, 성웅, 도견, 청우, 대성, 휴정, 원행, 적명, 고우, 정광, 성우, 무관, 현산, 혜국, 혜인, 성법, 원각, 인각, 무여, 정찬, 지환, 현묵, 우송, 의정, 지홍, 은성, 철우, 법타, 보광, 법산, 인환, 현각, 선래, 진월, 원명, 인걸, 지안, 지오, 도선, 운법, 효경, 덕운, 정안, 도진, 종본, 일철, 진기, 종수, 허운, 혜자, 원혜, 종립, 원소, 원종, 지선, 수경, 도견, 법광, 성광, 종고, 증열, 성국, 상륜, 진관, 명성, 태경, 묘엄, 대행, 명우, 법성, 법운, 진성, 불필, 본각, 해주, 일법, 수현, 운달, 지형, 도문, 계호, 경륜 서돈각, 송석구, 백창기, 명호근, 정인악, 명을식, 한재구, 김화남, 김윤호, 이영기, 김진관, 장영관, 김정길, 김백호, 이연숙, 조동룡, 정호돈, 윤석관, 김한곤, 이병춘, 안종학, 변영우, 김동기, 추교원, 박수관, 권세목, 최종대, 곽종형, 박희현, 국기일, 이상현, 전인구, 이인자, 김대중, 백원기, 이근후, 오희창, 김주본, 연기영, 임완숙, 김규범(무순)

※참석하시는 스님께서는 장삼에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정 대

사 설

정보화실태조사에 거는 기대

정보 인프라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 주관으로 4월 한 달간 진행하는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는 불교계의 경쟁력 높은 정보화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 TV, 본사 등이 합께 힘을 모으는, 그야말로 범종단 차원의 이번조사는 전국 1만 2천여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단 최초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세계에 깔리고 있는 정보망은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며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교계에서 과연 이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불교가 미래의 종교를 자임하려면 이 같은 정보화 사회의 도도한 흐름 속에 합몰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에 교단의 역량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조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띤다.

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정보 인프라의 양과 질이 곧바로 세계무대에서 감별되고 평가된다. 또한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에 맞는 '한국형 정보화'의 창조라는 과제에서 불교는 당연히 한국문화의 정보화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에서 나올 정확한 결과야말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며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의 성실한 동참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전화설문, 우편 및 온라인 설문, 방문면접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이번 조사에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승가기초는 4부대중의 화합

"비유하자면 여러 부분이 모여 수레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요소들의 인연이 화합하여 중생이라는 가명이 있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종단의 현실도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출가 2부중과 재가 2부중이 결합하여 4부중이 되며, 종단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동안 출가와 재가가 역량을 결집하여 21세기 분명의 초석을 다졌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한다. 종단의 기초는 신도들이다. 신도라는 기초가 튼튼하면 할수록 종단이라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다. 그동안 종단과 신도단체들은 원활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원사회의 종교 환경은 우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침내 종단 차원에서 신도단체의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각 신행단체장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이제는 승속이 하나가 되어 신도운동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 선언하며,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신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종단과 신도들은 벌개의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대 총무원장스님의 선언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종단의 백년대계와 불국정토건설은 재가와 출가의 화합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차제에 종단은 포교환경과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재가단체들은 종단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각 단체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청담스님 생애·사상 재조명한다

도선사, 탄신 100주년 맞아 세미나·전집 간행등 기념사업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평가하고 조계종 역사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청담문도회(회장 정천)와 도선사(주지 혜자)는 올해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청담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청담스님 전집 및 논총 간행, 유품 및 유묵 전시를 위한 상설전시관 설치, 사진 모음집 출판, 산사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특히 이번 기념사업은 그동안 불교 정화운동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온 데서 벗어나 청담스님의 선사상과 이념을 폭넓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청담스님(1902~1971)은 두 차례씩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역임하고, 66년에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을 지냈다. 또 47년 봉암사 결사 및 54년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오는 10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는 청담스님의 수행과 정화운동, 한국불교 현대화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를 제목으로 한 논총은 제1부 '청담대종사의 불교사상' 제2부 '청담대종사와 불교 정화운동' 제3부 '청담대종사와 현대한국불교' 제4부 '청담 재동사의 생애와 예술'로 구성된다. 각 부 마다 4~5편씩의 논문이 실린다.

모두 11권으로 구성되는 청담스님 전집은 〈정화운동과 한국불교〉 〈평전〉 〈생애와 사상〉 등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간될 예정이며, 청담스님 사진 모음집도 10월경 발간된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청담스님의 유품, 글씨, 사진 등을 모아 경내 청운당에 상설전시관을 설치, 전시하며, 학술세미나가 끝난 2~3일 뒤 불교음악인과 연예인을 초청,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청담스님의 뜻을 기린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옮겨라

양평군청, 신축불허

양평군청이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옮길 것을 요구하며 용문사의 건물신축 신청을 불허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전통사찰 신축허가의 경우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해주도록 되어 있다.이에따라 용문사는 신축허가 불허를 편파행정이라고 판단,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군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강원교과목 개편 필요" 56%

교재 한글화 10명중 6명 찬성

조계종교육원, 학인 691명 대상조사

강원 학인 중 절반 이상이 강원 교과목이 개편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재의 한글화에 대해서도 10명중 6명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2000년 사미 221명, 사미니 470명 등 강원 학인 6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2일 발간된 〈승가교육〉 제4집에 분석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교과목 개편과 관련해 응답자의 388명(56.2%)이 '개편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1.7%(219명)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1.4%(79명)이었다. '개편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2명(50.9%)이 '불교일반과목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교일반과 현대학문 보완'이라는 전체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학인도 107명(15.5%)이나 됐다. 그러나 '전통과목 확대'를 주장한 학인도 105명(15.2)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의 전통과목을 인정하는 선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교재 한글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394명(57%)이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반대한다'는 견해도 279명(40%)으로 나타나, 교재를 한글화 하더라도 한문교재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반영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한국불교 업그레이드…

13일 동화사 주지선거

대구 동화사 주지선거를 위한 산중총회가 13일 오후 1시 심검당에서 열린다.

5일까지 동화사에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한 스님은 현 주지 성덕스님과 지성스님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전수(여자 스승)가 입게 될 밤색 반두루마기.

진각종, 스승법복 바뀐다

임시종의회, 밤색양복서 노란색 개량한복으로

진각종 스승 법복이 새롭게 바뀐다. 진각종은 지난 3월21일 대구교구청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현재 정사(남자 스승)의 법복인 밤색 양복을 노란색 개량형 한복으로 교체키로 결의했다. 법복 교체는 전통미와 편리성을 살리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정사 법복은 상·하의 모두 노란색 개량형 한복이며, 법복 위에 밤색의 온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된다. 전수(여자 스승)의 법복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밤색 상의(겨울), 흰색 상의(여름)에 밤색 치마를 그대로 유지하되, 밤색의 반두루마기를 착용토록 했다. 총인의 법의는 황금미색으로, 법복은 흰색, 온두루마기는 정사·전수와 같은 밤색으로 결정했다. 한명우 기자

제22회 구족계 수계산림

15일~22일 직지사서

조계종 총무원은 15~21일 7일간 직지사 금강계단에서 제2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사미 165명, 식차마나니(사미니계를 수지한 지 2년이 지난 자) 159명 등 모두 324명이 입재하며, 이들은 산림 첫날인 15일 4급 승가고시를 치른 후 7일간의 산림을 거쳐 21일 비구(니)계를 받게 된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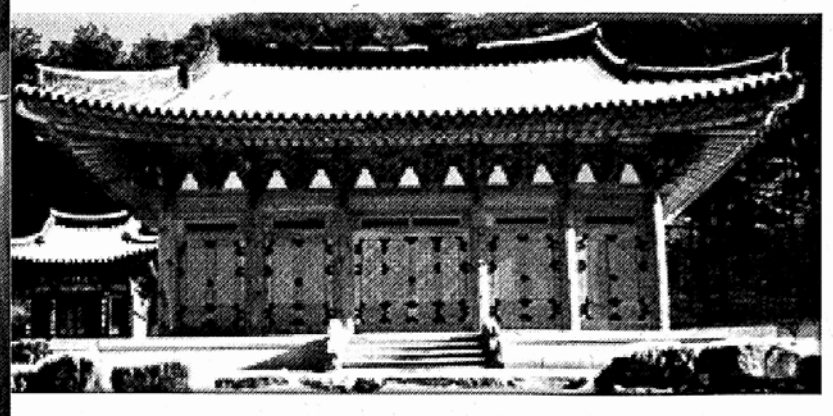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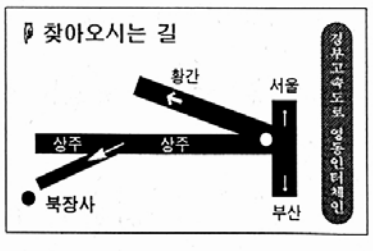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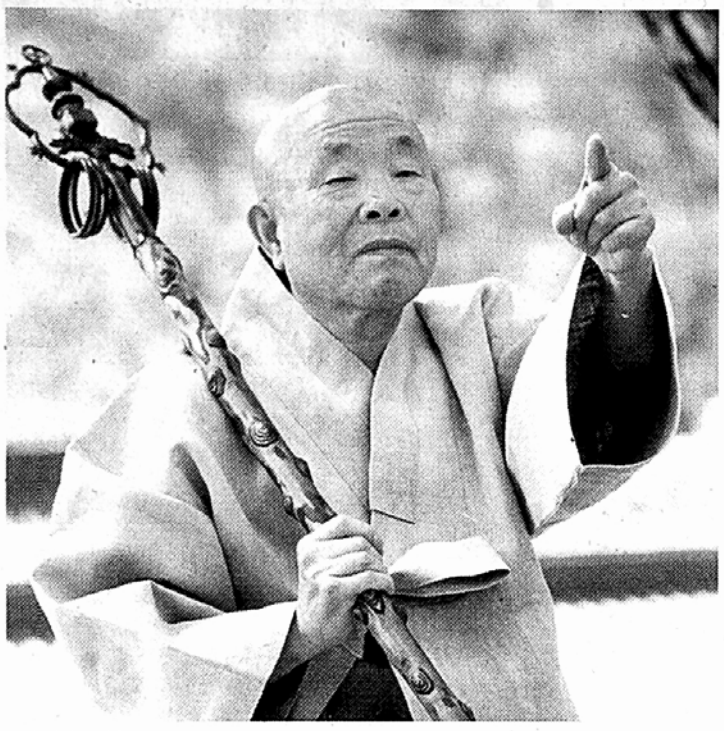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

"자성 깨우쳐 자신이 만든 극락서 살아야"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 스님 첫 기자회견



◇법전 스님은 2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화합과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2일, 조계종 새 종정 법전(法傳)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가야산 초입에 들어서자 온통 꽃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화엄세계가 펼쳐졌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화엄경등에서 중생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꽃에 비유해 설명하셨다. 꽃을 인간세계에 비유한다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수행의 꽃'일 것이다.

50년 정진으로 한길을 걸으며, 수행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 스님. 스님은 목련꽃 향기가 진동하는 해인사 퇴설전 앞뜰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수행과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전스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부처다"며 "나는 하느님이 만든 천당도, 아미타불이 만든 극락도 원치 않는다. 나의 자성을 깨쳐 내가 만든 극락에서 살고 싶다"는 말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에 추대되셨는데요. 이후 생활에 변화가 있으신지요?

"개명불개체(改名不改體)라. 이름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출가인에게 이름과 지위는 따지고 보면 자기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84,000가지 위의를 갖추고 계셨지만 오직 만덕으로 중생의 복전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했습니다. 종정으로서 불조의 법맥이 끊어지지 않게 면면히 이어지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 '지계청정(持戒淸淨) 견성성불(見性成佛) 중생교화(衆生敎化)' 라는, 종단운영 방침을 교시로 내려주셨는데요.

"계율은 자기를 맑히고 종단을 청정케 하는 근본입니다. 똥 담는 바가지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똥물입니다. 그릇자체가 깨끗해야 수행이 되고, 맑은 지혜가 나옵니다. 수행인과 교단이 청정할 때 종단 위계질서가 바로 서고, 모든 사람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견성성불은 바른 안목을 갖춘 납자들이 불조의 혜명을 잇는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행풍토의 회복은 종풍 선양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내 공부에 철저해야 해요. 수행력이 사회에 중생교화로 되돌려 질 때 참의미가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의 가장 큰 현안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종단발전은 화합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교육이지요. 교육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종단화합을 위해서 멸빈자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멸빈이나 사면 복권은 종헌 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회와 총무원 호계원 그리고 원로회의 등 종단의 입법 행정기관들의 합의와 적법한 법절차를 밟아 사면 복권을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한쪽 말만 듣고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종단화합 · 수행 · 교육' 가장 중요

청동대불 건립문제 전문가 의견 존중

◆지난해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해 불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해인통일석가모니불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절집안 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종도들과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산승이 부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상사에 가서 젊은 혈기로 일으킨 사태는 잘못된 것이고,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불가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는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49년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는 등 조사선 수행으로 평생 한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불교수행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요?

"수행은 자기실현의 길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자각해야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명과 탐욕으로 인해 본성을 잃고 있지요. 끊임없는 사유와 정진으로 내심자증(內心自證)하며 자성을 증오해야만, 나고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삼계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명과 탐욕에서 자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조계종의 통합종단이 출범한지 올해로 40년입니다. 시대를 이끌고 선도하는 종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종교단체에서는 정화방식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가르치듯 인격자를 기르는 게 종교혁명입니다. 정부가 돕는다고 종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스님들이 수행을 게을리 해서 불교가 뒤쳐졌어요. 수행자의 모든 위상은 철저한 수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파야 공부할 마음을 냅니다. 수행자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만간 훌륭한 스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대선 등 국운이 달린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정치인의 덕목을 일러주십시오.

"산승인 제가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지 비판적인 소리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큰 일들을 성공적으로 치르면 반드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법구(法句)로서 평소 자주 들려주시는 가르침이 있으신지요.

"'內勤剋念之功(내근극념지공)하고 外弘不爭之德(외홍부쟁지덕)하라' 란 말을 좋아합니다. 안으로는 부지런히 남모르게 수행을 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쌓으라는 말이지요. 수행은 승려의 본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인연따라 여러 가지 소임을 살다보니 덕도 쌓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늘 자기의 분수를 알고서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애써야 합니다."

> "안으로는 부지런히 남모르게 수행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쌓으라"

인터뷰를 마치자 스님은 기자들에게 갑자기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했다.

"당나라 말기에 산골에 오막살이집을 짓고 깨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투자(投子)선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한 수좌가 찾아갔어요. 투자선사가 '그대는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수좌는 '칼산으로부터 옵니다'라고 답해요. 이에 투자선사가 '칼을 가지고 왔느냐'고 말하자 수좌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법문한 스님은 "기자들, 수좌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킨 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며 숨을 죽이는 찰나, "자 '아무도 얘기 못하시네. 한번 얘기해봐…" 스님이 가야산이 흔들리도록 큰소리로 할을 하셨다. "악 !"

해인사를 나서는 기자들에게 원철 스님(해인지 편집장)이 시(詩) 한편을 적은 종이를 한장씩 주었다. 중국 당의 은자 한산이 지은 시(詩)였다.

'寒山子 長如是(한산자 장여시) 獨自去不生死(독자거 불생사)'

'한산자는 항상 변함이 없어서, 홀로 스스로 가고 생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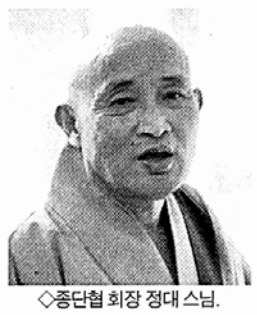
문득, 법전 스님이 화두에 이어 답을 주신 것은 아닌가 느껴졌다.

글=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 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설문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불교종단협의회장 정대 스님 당부말씀



◇종단협 회장 정대 스님.

귀의삼보 하옵고,

봄기운 완연한 이 좋은 시절에 전법도생의 사명에 여념이 없으신 제방의 대덕 스님들과 참 불자의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일컬어 정보화 사회라 합니다. 정보가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불교계도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은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정도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교계 정보화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 없이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불교계의 언론 3사(BBS, btn, 현대불교)와 손잡고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정보화 분야의 과제들을 짚어냄으로써, 불교계에 보다 향상된 정보화 틀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마침 이 조사 사업에 KT(한국통신)가 협찬을 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후원을 하여 불교계의 정보화 불사는 충분히 발전 지향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마련된 이 중요한 기회에 사부대중께서 적극 동참하실 때 불교계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께서 짧은 시간 가져 주시는 관심과 협력이 불교정보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설문에 무루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 하나

◉주요설문내용◉

△PC: 컴퓨터의 이용 여부와 주된 용도 및 주 사용자, 업무 만족도, 구입 희망 여부 등을 묻는다.

△인터넷: 인터넷의 사용 여부, 접속 유형, 주된 사용 목적, 정보 검색의 관심 분야, 평균 사용 시간 등 사용실태에 대해 질문한다.

△홈페이지: 사찰이나 단체가 홈페이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설문한다.

△불교 정보화 의견: 정보화로 인한 종무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과 불교계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및 그 적절한 범위 등을 묻는다.

△핸드폰과 관련, 문자 메시지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PDA의 사용 여부,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방송 등 각종 통신 환경에 불교계는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가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된다.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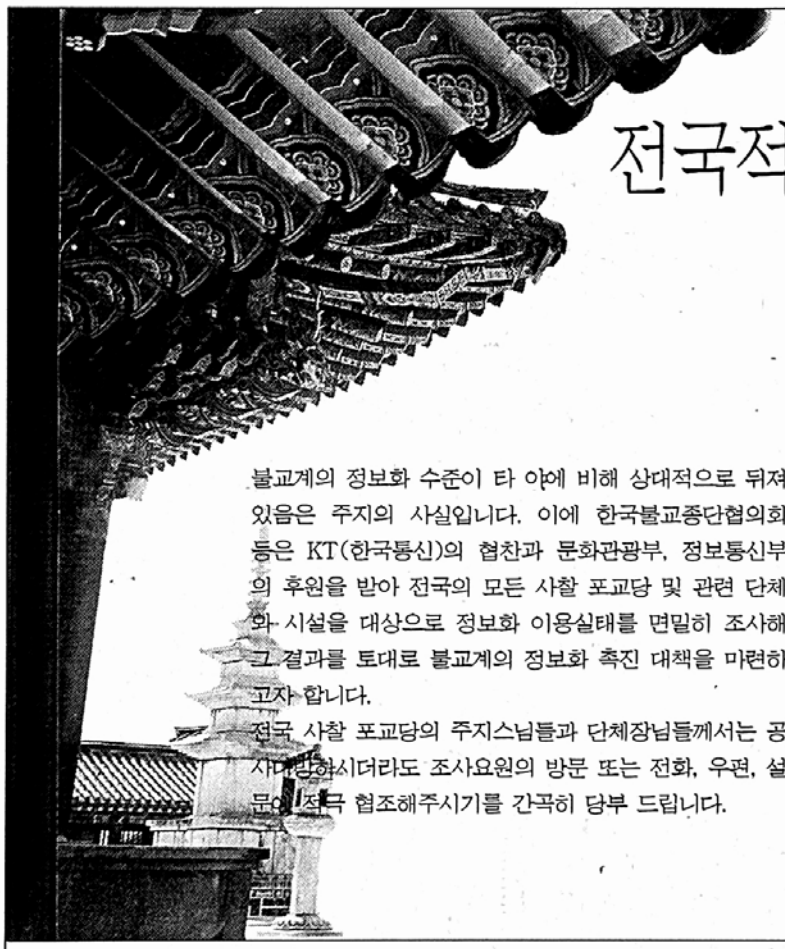
△전화 설문: 1만 2천여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20여 문항을 전문 업체가 설문한다.

△우편설문: 종단협 등록 종단의 6천여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80여 문항을 우편 설문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 여부 등 85항 질문
전화 · 우편 · 방문 등 4방법 동원

△온라인 설문: 우편설문 대상 사찰과 단체에 설문 문항과 함께 온라인 설문을 위한 CD를 동봉해 우송한다. 이 CD는 모바일 버전의 신 개념 종무관리 프로그램이다.

△방문 면접 설문: 각 종단의 총무원 및 종무기관과 주요 사찰 500여 곳에 대해서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을 한다.



전국적인 정보화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이 타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은 KT(한국통신)의 협찬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모든 사찰 포교당 및 관련 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불교계의 정보화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의 주지스님들과 단체장님들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조사요원의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설문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조사대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록 종단의 모든 단위사찰 포교당
- 현재 활동중인 불교관련 단체

조사기간
- 2002년 4월 1일 ~ 30일

당부 사항
- 전화 설문 조사에 응대해 주십시오.
- 우편 조사 시 설문지 작성을 성심껏 해 주시고 반송봉투에 담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조사 시 조사 요원의 활동에 협조해 주십시오.

조사결과 발표
- 2002년 5월 중 (지상 공개 및 백서 발간)

푸짐한 경품 그리고 [illegible]
- 전화, 우편 조사에 응해 주시는 사찰(단체) 중 100 곳을 추첨해 모형 에밀레 종을 드립니다.
- 방문 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사찰(단체)에는 고급 달마수저세트를 드리고 향후 초고속 인터넷을 가설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방문, 우편 조사에 응해주시는 사찰(단체)에 대해서는 신개념의 종무관리프로그램인 '상황종무관리 모바일 버전'을 무상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BBS, btn,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 KT(한국통신) ■ 후원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 이 광고는 KT(한국통신)가 비용을 부담 합니다

일주문



공소사 초청법회서 법문

혜거 서울 금강선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공소사에서 열리는 법회에서 법문한다.(031)246-1001



구파발역 인근 법당 이전

청운 서울 광운정사 주지는 15일 고양시 지축동 구파발역 인근으로 법당을 이전한다.(02)387-8529



경기불교문화원 개원식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은 13일 오후 3시 수원 팔달구에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한다.(031)251-1083



정여 스님 초청 수계

고행섭 부산지방경찰청 경불회 회장은 8일 경찰청내 무궁화법당에서 정여 스님을 법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7천여 교사에 '…한국사' 배포

교육문화재단 오태환 이사장



"우리의 뿌리와 가치관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익인간의 전통사상 위에 자유와 평등의 서양사상은 없는다면, 혼돈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나침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준환 교수(경기대)가 집필한 〈반만년 대륙 민족의 영광사! 하나 되는 한국사〉를 최근 재발간, 사재를 털어 배포하는 한국교육문화재단 오태환(사진) 이사장. 오 이사장은 "이 책을 전국의 대학 및 역사교사 7천여 명을 비롯 방송관계자들에게 무료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홍영선 제주불교봉사회장

제주 여성단체협 회장에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세미나, 전문가 초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시에는 30개가 넘는 여성단체가 있지만, 현재 시협의회에는 18개 단체만이 가입돼 있어 회원단체가 늘어나도록 조직관리에 힘쓸 것입니다."

1일 제3대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홍영선 회장(사진)은 우선 7월초에 열리는 여성주간 행사부터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 여성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전국단위로 신도회 조직 추진"

거사 모임 '선정회' 결성하는 법장 스님



선정회 창립에 앞서 법장스님은 지난 3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고문으로 추대됐다. 평소 불교계 대소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어려운 이웃에도 남달리 관심을 가져온 스님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법장스님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법문한 내용을 모아 엮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불광출판사)를 얼마 전 펴냈다.

"불자들이 불교를 바로 아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가당찮은 줄 알지만 단지 부처님 말씀을 제가 대신해 전하는 것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라며 법장 스님은 책 판매수익금 전액을 생명나눔실천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법문집 발간… 수익금 생명나눔회에

"불교를 생활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신도회 조직을 통해 신도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포교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사진)은 14일 거사들의 신도단체인 선정회 창립을 앞두고 홍성, 서산, 당진 등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도 지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여신도들의 신행단체도 창립할 생각이다

"한국불교인식 새롭게 할 터"

美 하버드·프린스턴大서 강연 지광 스님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사진)이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한국불교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지광스님의 이번 강연은 하버드대 동양학부 소속 불교연구커뮤니티와 프린스턴대 종교학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하버드대의 초청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 지성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이번 초청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광스님은 17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한 뒤, 18일 하버드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 두 강연에서 스님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아직도 티베트나 일본, 중국 불교에 비해 한국불교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지광스님은 하버드와 프린스턴대 강연과 함께 스탠포드대와 버클리대 강연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대학 강연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지광스님은 하버드와 프린스턴대 강연에 이어 21일 뉴욕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뉴욕법회는 지광스님의 미국강연소식을 접한 교민들과 뉴욕 불교사원연합회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지광스님은 "우리 교민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포교거점을 마련해 한국불교 포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뉴욕교민 위해 두차례 법회도

"불자들의 수행·복지도량으로"

지장사 포교원 개원 혜인 스님



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도량으로 가꿔나가고자 시민선방 개원, 봉사단 결성, 신행 상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스님은 "지옥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큰 원력을 사바세계에서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불자는 마음에서 잠시라도 수행을 놓지 않고 불법을 온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인 스님은 미국 시카고 불심사에서 법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국내에 들어와 불심사를 개원, 오로지 포교활동에 전념해 왔다. 또 스님은 '이젠 마음 비우거라' '내 마음의 풍경' 등 수필집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선방 개원·봉사단 결성 추진

서울 우이동에 불심사를 창건한 후 10여년 동안 포교활동을 펼쳐온 혜인 스님(사진)이 불자들의 신행은 물론 수행, 복지, 포교를 아우르는 종합도량을 7일 개원했다. 강북구 수유1동 472-463번지 영진빌딩 2층에 마련된 지장사.

혜인 스님은 지장사를 누구든지 와서 기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시민들과 불자들이

"불교 중흥 위해 법보시 운동"

대만 불타교육기금회 이사장 정공 스님



대만을 비롯해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폴 등에 지부를 둔 대만 불타교육기금회 및 정종(淨宗)학회 이사장 정공 스님(사진 오른쪽)이 방한, 1일 동국대에서 송석구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불타교육기금회는 경전류를 영인해 세계 각국에 보시하는 단체로 이번에 〈건륭대장경〉 등 모두 1만여 권 분량의 불서와 정공 스님의 〈화엄경〉 강의 등을 담은 DVD를 동국대와 봉선사, 중앙승가대, 강원대에 법보시했다.

중국 정토학과 화엄학의 대가이기도 한 정공 스님은 "한대 이후 중국 문화와 하나가 돼 온 불교가 150~200년 전부터 서양 기술과 문화, 사고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법보시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1927년 중국에서 태어난 정공 스님은 59년 대만 임제사에서 출가했으며 중국정토종실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서 1만여권 동국대 등 기증



군불교 총신도회장 이종옥대장 전역기념법회

군불총 회장 이종옥 대장 전역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 초대회장인 이종옥(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대장의 전역법회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봉행됐다. 이종옥 대장은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신행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후배 군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은 전역법회를 마치고 원광사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봉선사 능엄학림 2기 졸업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3월 29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능엄학림 제2기 8명에 대한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과 주지 일면 스님,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 통도사 성파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운 스님은 졸업치사(사진)에서 "작은 성과물이나 얼마 되지 않은 실력 취득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자비신행회 한꽃장학금 수여식

보성 대원사 자비신행회(회주 현장)는 3월 30일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한꽃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24명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광주교사불자회 추천으로 선정됐다. 자비신행회 회주 현장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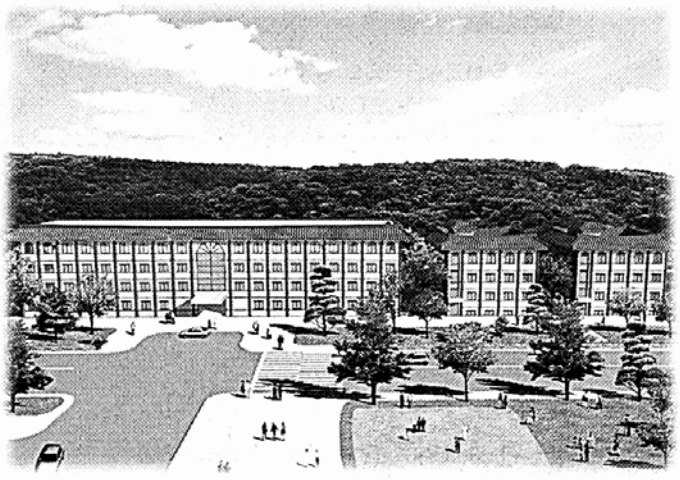
불자교정인련 춘천교도소 위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3일 춘천교도소 관음도량에서 재소자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오희창 회장은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맑고 밝은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법회후 불자교정인연합회는 재소자 불자 4백여명에게 떡과 다과를 제공했다. 오희창 회장이 재소자 불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집 평생기도처 개원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 정진으로 마음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 요양원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건물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복지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입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광원 조감도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70세이상
· 부부 또는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은 모든불자(남녀불문)
노환스님.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으신분
◆ 정 원 : 약 30명
◆ 부대시설 : 상담실, 진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미용실, 법당, 식당, 일광욕실, 정원, 산책로등
◆ 연 락 처 : 전화 031) 759-5310, 5320
FAX 031) 759-4209
E-mail : jkwkey@kornet.net

개원예정일 2002년 4월 (일자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 (노인요양시설)

KBS불교硏 원택스님 초청법회

KBS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3월 30일 본관 회의실에서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및 직원 6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원택스님은 성철스님의 일화를 들려주며 "초발심을 되새겨 바른 삶을 살아가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동참자들이 원택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 교리강습

경찰청 경찰불교회(회장 박재진)는 4일 경승실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경스님을 초청해 '불자의 기본 예절'을 주제로 기초교리 강습법회를 봉행했다. 경찰불교회는 회원들의 기초교리 강습을 위해 주경스님으로부터 매월 2회씩 법문을 듣기로 했다. 주경스님이 동참자들에게 불교예절을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역점"

청주 운불련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더 넓은 법당 마련, 놀이·교육공간 활용



◇청주 운불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청주운불련 법당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청주지역회(회장 류승준, 이하 청주 운불련)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선다.

청주 운불련은 현 법당을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인근 어린이는 물론 회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새롭게 펼쳐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포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2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에서 밝혔다.

류승준 회장은 "창립 초기 50여평으로 마련한 법당이 회원들의 증가로 인해 법회 공간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100여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 원만한 법회 진행은 물론 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용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또 "창립 10년 동안 각종 봉사활동과 장학사업 등 대외사업과 조직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결과 운불련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만큼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도 3월 31일부터 1박2일 동안 예산 수덕사에서 수련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통해 거리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운불련은 회원 교육 테이프 지원사업과 지역회, 회원 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아동,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회간 교류 활동 강화와 타 신행단체와의 신행 정보 교류 등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믿음 심어주는 불교돼야"

박찬주 법제처장



"불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자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의 한국불교 풍토는 지나치게 자력신앙만을 강조하다보니 의지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주(54·사진) 법제처장은 한국불교가 불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통해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신행활동을 펼쳤지만, 다량의 지식을 쌓는데 그쳤다는 것.

박처장은 "진실로 기도하고 염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때 불교에 대한 신심도 깊어진다"며 "현재의 한국불교가 이같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한국불교가 선불교적으로 흐르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처장은 대불련에서 사상강좌 등을 주관하며 기본적 교의를 습득했다.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법명은 혜륜. 당시 사상강좌나 경전강독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에 대한 신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박처장은 서울 양재동 구룡사 정우스님과 각별한 교분을 나누는 사이다. 89년 강남으로 이사한 후 부인 강연련 여사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곳이 구룡사였다. 이때의 인연으로 정우스님과는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박처장은 "열정만 있었을 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서 스스로를 '실패한 불자'라고 겸손해 한다. 깊은 신심을 지니지 못했다는 뜻의 간접 표현인 셈이다. 요즘에는 바쁜 일과에 쫓겨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매일 108배와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기도 했다. 특히 법화경의 깊고 오묘한 교의에 매료돼 50회 이상 읽는 등 부처님 말씀을 탐독했다. 그는 해석된 경전 보다는 원문 경전을 읽어 왔다. "자의적으로 해석된 경전은 불자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소신 때문이다.

박처장은 또 한국불교계가 전반적으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과 조사선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내 것만 강조하다 보면 잃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박찬주 처장의 생각이다.

매일 108배·금강경독송 생활화
대불련 활동, 대학때 법명도 받아

금주의 법회

■ 10일

△현대석유화학 현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서산 해월사

■ 11일

△경기도청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수원 봉녕사 △부산시청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7시 부산 서대신동 보타원 △농협중앙회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본관 소회의실 △구미운전불자회 성지순례=강화 전등사·보문사

■ 13일

△서초반야회 성지순례=영주 부석사·봉정사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 연합수련회=합천 해인사 △한빛은행 부산불자회 정기법회=오후 5시 부산 영주암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수계법회=오후 3시 종합운동장역 법당

■ 14일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성지순례=순천 송광사

■ 15일

△동두천시청 삼보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동두천 보문사 △수원법조인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수원 영통반야사

<법회 안내 (02)722-4162~3>

불교계 IT 아이템 보고



KT 법인영업단 박균철 단장

"불교계의 IT 관련 아이템은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인식을 넘어 민족문화의 차원에서 개발해야 할 컨텐츠도 많고 전통사찰이 갖는 관광과 문화상품적 가치도 큽니다. 전통수행의 경우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좋은 컨텐츠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같은 기반을 가공하여 세계화 하는데 있어 관련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불교계의 정보화 향상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KT(한국통신)의 법인 영업단 박균철 단장은 3월 25일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불교계 정보화 사업 추진 협정'을 체결하고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에 KT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불교계 정보화의 현주소를 파악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불교가 민족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IT분야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 KT는 시설 구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적극 협력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교계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조

"지난해 전남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사찰이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는 박단장은 산중 사찰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연태 기자

의료봉사로 불심다지기

병원불자련·보현회, 시흥·광주서 시술

의료인불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불심을 담은 인술을 베푼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는 21일과 20일 시흥 혜명양로원, 보육원과 광주 나눔의 집에서 각각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혜명양로원과 보육원,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불자회는 국립서울정신병원, 경희의료원, 경찰병원, 한일병원, 국립의료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춘천정신병원 등이다.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회장 구병수)도 광주 나눔의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한방진료활동을 펼친다.

보현회는 나눔의집에서 매월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병원불자연 임종승 총무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의료봉사를 베푸는 일은 의료인불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진료를 받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불자회 창립 1주년 법회

해병대불자회(회장 김흥국)는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창립 1주년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와 불자연예인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 김흥국 회장은 "해병정신과 신행활동을 어우른 군포교, 사회봉사, 환경보호운동 등을 펼쳐 불교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찰 납골탑. 이제 무한21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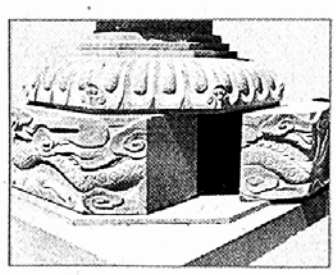
◇ 우리 모두는 불자들입니다.
◇ 스님과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스님과 불자를 믿음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무한21 영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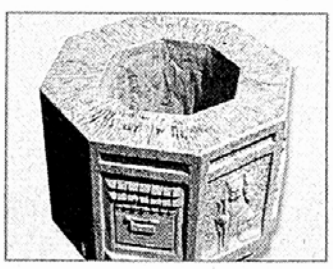
1. 결로 방지 및 통풍에 역점을 두어 제작.
2.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
3. 사찰 신도관리 프로그램 무료지원.
4.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
5. 납골탑 분양관련 제반업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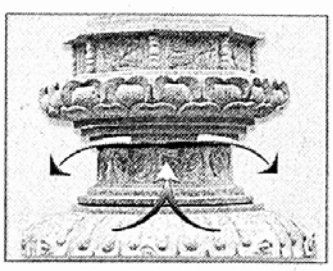
전통 불교미술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8각형 납골탑



편리한 개폐식 봉분실



탑신부 내부의 중앙 유품실



결로방지 및 신속한 통풍구조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영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아이들이 현종스님과 한자리에 모였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은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22명 아이들 돌보는 상주 호암사 현종스님

"계절 바뀌니 옷 걱정이…"

경북 상주 호암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건넨다. 조그만 몇 동의 낡은 건물로 된 호암사에는 5살, 6살 꼬마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공양주 보살, 그리고 현종스님등 22명의 대가족이 살고있다.

품앗이로 가족들 봉양

11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종스님은 점점 늘어나는 가족으로 한동안 참기름과 배추 장사를 하거나 품앗이로 농사일도 해가며 가족을 부양해 왔다. "나중엔 도반들 찾아가서 5만원, 10만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빚이죠. 특히 IMF로 후원자가 뚝 끊겼을 때는 장사를 해서 근근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고비를 넘기고 하나 둘 늘어난 후원자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싶자 지난해 9월, 화마가 덮쳤다. 법당과 창고, 여자아이들 거처가 누전으로 전소됐고 옷가지와 식료품과 학용품이 모두 타버렸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라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감사한다"는 현종스님은 이후 어렵게 조립식 건물을 다시 짓고 여학생 거처를 다른 동으로 옮겼다.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스님과는 달리 11년째 살림을 맡고 있는 이옥연(55) 공양주 보살은 걱정이 많다. "계절이 바뀌니 옷이 걱정이예요. 가끔 입던 옷을 후원받지만 아이들 옷은 벌로 없어요. 수저, 그릇, 학용품도 모두 부족하죠. 식구가 많으니 위생을 위해 식기소독기도 있어야 하고, 또 세탁기도 고장이 났고…."

공양간의 소소한 걱정거리는 스님에게 부담될까봐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 보살은 "동네 사람들에게 신세 많이 진다"며 웃었다.

먹일 것, 입힐 것 걱정이 태산 같아도 이 보살은 "아이들이 착해서"라는 말을 모든 걱정 뒤에 빼놓지 않았다. 미술에 남다른 재주를 보이는 용환이, 피아니스트가 꿈인 정현이, 요리사를 꿈꾸며 공양간 일을 곧잘 도우는 순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오는 동헌이. 착한 아이들을 보며 현종스님이나 공양주보살은 잠시 어려움을 잊는다.

동네사람 신세 많이 져

"인연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내 일생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현종스님. 스님은 장차 아이들을 위해 생활관 건립 계획을 세워두고 부지를 마련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족 사랑의 완성이라 믿는 까닭이다.

후원방법 : 계좌 609-24-0113-454(국민은행) 예금주 심만택

전화:(054)541-7863

상주=천미희 기자

신행 캘린더

4월 10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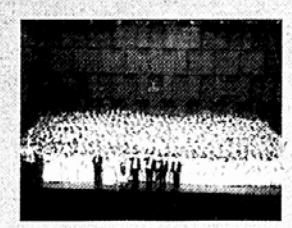
■법륜 스님 '반야심경' 강좌=반야심경의 공(空)사상을 일상생활에서 발견해 볼 기회.

이번 법륜 스님의 전국 순회강연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정토회관에서 열리며, 부산 대구 대전 등 각 지역 정토법당에서도 열린다. 무료강의.(02)587-8994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대법회'=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은 오후 4시부터 정각원 법당에서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을 초청, '바르게 잘 살기'라는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054)770-2016

4월 11일 (목)

■삼보불교음악협회 '찬불가집 발간기념음악회'=신도용 찬불가집 발간을 기념해 불자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화음의 세계. 태고종연합합창단, 천태종연합합창단 등이 참가해, '범종' '공신공체' '한마음 있음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불음(佛音)을 들려준다.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입장은 무료.(02)723-0440



◇지난해 열렸던 삼보불교음악회.

4월 13일 (토)

■동산반야회 '성지순례'=국보 17호 부석사 석등, 18호 무량수전, 45호 소조여래좌상, 그리고 희방폭포…. 수많은 성보들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찰 부석사와 희방사로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저녁 9시 서울 견지동 동산반야회 앞. 참가비 4만원.(02)732-1206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 상영=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토요일 오후 3시 수련원 7층 소극장에서 무료영화 상연한다. 13일에는 최근 화제작인 '달마야 놀자'가, 27일에는 '라스트 캐슬'이 상영된다.(051)868-0750

■경기불교대학 '지관스님 초청법회'=경기불교대학은 지관 스님 초청 법회를 오전 10시 수원포교당 내 불교문화원에서 봉행한다.

가산불교문화원장인 지관 스님은 30년 동안 불교학 연구와 후진 양성 등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 학승. 스님의 학문적 숨결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 될 듯.(031)255-2692

■터사랑 '성지순례'=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보사찰 통도사 방문과 우리나라 최대 비구니 강원이 있는 운문사에서의 새벽예불….

출발은 저녁 9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참가비는 5만 5천원.(02)725-1284

4월 16일 (화)

■두레생태기행 '남산 생태답사'=원구단, 와룡묘, 한옥마을, 장충단, 수표교, 서울성곽….

봄꽃이 피었지만 공해병으로 나날이 시들어 가는 서울 남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생태전문가 나각순 씨의 환경강의도 들을 수 있다. 출발은 오전 9시 덕수궁 정문 앞. 참가비 1만 3천원.(02)712-5812

4월 17일 (수)

■천불사 '성수스님 초청대법회'=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 초청법회가 오전 10시 30분 충남 천안 천불사에서 봉행된다.

불자들에게 늘 수행하기 전에 인생관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성수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불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인생관과 수행방법에 대해 알아본다.(041)557-3223

부처님 말씀 액자담아 보시 30년

우리 절 우리 신도

진각종 탑주심인당 박성은 신도회장



◇치매노인들과 함께 치매치료프로그램인 '콩고르기'를 하고 있는 행원심 보살(사진 맨 왼쪽).

"나부터 바르고 정직하게, 이타행의 삶…"

사위·며느리 모두 불자… '행원심 사단'

지난 1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탑주심인당(주교 도흔). 진각종의 총본산인 총인원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심인당(진각종의 법당)에 벌써 3시간 째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 노보살이 가부좌를 틀고, 염송(念誦)을 하고 있다. 바로 탑주심인당 신도회장 박성은(64 · 행원심) 보살.

40년 넘게 매일 새벽 정진은 물론이고, 매월 월초불공(매월 첫째 주 동안 하는 불공)에, 매년 49일 불공까지 빠짐없이 신행생활을 해온 박 보살은 심인당이 '천정집' 같다고 말한다. 박 보살에게 이곳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를 다지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홉 살에 열반한 시부모를 3년 동안 꼬박 대소변을 받으며 병 수발을 들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의 내조와 자식들 교육, 그것도 모자라 시동생 둘까지 뒷바라지하랴 주름살은 패일대로 패였다. 그저 며느리, 아내, 엄마, 형수로 평생을 살았다며 계면쩍어 하는 박 보살. 이들을 부처님같이 여기며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심인당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0년 전부터 부처님 말씀을 담은 액자를 신도들에게 무상보시 해온 박 보살은 96년 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 설립 당시 거금을 쾌척하는가 하면, 열일 제쳐 두고 인근 복지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정도로 어려운 이웃 돕는데도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신도회 내 자원봉사 소모임인 '바라밀회'을 결성, 매주 수요일이면 치매주간보호소인 '진각치매노인센터'를 찾아가 목욕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려운 도반을 남몰래 찾아가 쌀가마니를 두고 와 '그림자 보살'로 불리고 있는 박 보살. 그에게는 '나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살자'는 자원봉사 지론이 있다. 이 같은 지론은 신행생활과 자원봉사 활동 면면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게다가 가정불화를 겪는 신도들의 인생 상담까지 도맡고 있다. 얼마전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박 보살이 신도들부터 신망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박 보살 가족이 모두 신심 깊은 불자라는 점이다. 남편 김진열(68 · 현운, 신원통신 대표이사) 씨는 사업일로 바쁜 중에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 자성일 불사(법회)시간을 지키는가 하면, IMF 경제위기 당시 심인당 내 사업에 실패한 신도에게 선뜻 사업 자금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부부의 모범된 신행 생활은 이미 신도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곤 한다.

이뿐만 아니다. 1남1녀 자식들은 물론, 사위와 며느리까지 법명을 받았다. 큰 딸 규리(35) 씨는 원명정, 아들 용식(33) 씨는 덕성, 며느리 박옥(32) 씨는 청정수, 사위 권건록(36) 씨는 혜명이라는 법명으로 신행생활에 열심이다. 때문에 신도들은 이들 대가족을 '행원심 사단'이라고 부른다.

박성은 보살의 도반 법성제 보살은 "며느리는 물론, 사위까지 불심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불자인 집안은 보기 드물 겁니다. 박 보살님의 깊은 신심이 가족을 부처님 울타리에 살게 한 거죠. 이들 가족의 신행은 심인당의 자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최근 들어 박 보살은 큰 원을 세웠다. 올해,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총금강회(신도회 연합회)가 추진하는 '좋은 인(因)을 지읍시다!' 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박 보살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신이 '참여, 화합, 회향'인 만큼, 내가 먼저 앞장서 참여하여 모든 신도들과 화합해 다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추천의 말

도흔 탑주심인당 주교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이것이 진각종 수행의 핵심입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이를 믿음의 뿌리로 삼고 생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원심 박성은 보살은 끝없는 수행으로 심인당의 한 구석을 변함없이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항상 진언수행을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해 언제 어디서나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남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도반들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또 행원심 보살의 온 가족은 불자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가족 제도'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조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탑주심인당에서도 많은 행사를 준비 중인데, 행원심 보살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주어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전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염불 간경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벤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四念處 통찰…몸과 마음의 자유 체득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위빠사나

1.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이해
2. 위빠사나 수행의 실제



◇보리수 선원에서 경행 수행중인 사람들. 발의 움직임과 그에따른 모든 느낌을 철저히 관찰하면서 이동한다.

아나파나(anapana)와 위빠사나(vipassana)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직접 실천했던 수행법으로 현재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권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아나파나가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관찰하는 '호흡관'에 바탕을 둔 수행법이라면, 위빠사나는 〈대념처경〉에 나타나 있는 신(身 · 몸의 움직임), 수(受 · 느낌), 심(心 · 마음의 움직임), 법(法 · 생각의 대상) 등 사념처(四念處)를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위빠사나는 '관(觀)' '정견(正見)' 등으로 번역되며, '밝게 비추어 본다' 또는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말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빠사나는 '사념처, 즉 온갖 대상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그 마음이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아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의 자유를 체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오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욕구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 것도 하기 싫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도 벅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현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르다는 판단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붓다락키다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현실도피의 방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수행자에게 '그 생각조차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설명한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며, 이해관계, 또는 옳고 그르다는 판단 자체를 떠나야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락키다 스님은 이날도 여러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들은 보고 있는가."

3월26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보리수선원 수련실.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한 달째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김순애씨(31)가 매우 느린 동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다. 팔짱을 낀 채 눈을 지긋이 감고 한쪽 발을 뒤꿈치부터 아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는 다시 뒤꿈치부터 바닥에 댄다. 이렇게 한 발 앞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여. 얼핏 보기에는 무슨 무용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김씨는 지금 온 정신을 몰두해 자신의 발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경행' 수행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움직임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발에 닿는 바닥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참을 경행에 몰두하던 김씨가 20여명이 무리지어 좌선하고 있는 쪽으로 향한다. 물론 자신의 동작과 그에 따른 느낌을 철저히 보면서 이동한다. 방석 위에 도달해 손으로 방석 위를 짚고 허리를 굽혀 앉기까지 그 모든 동작도 철저히 관찰한다. 좌선을 유지하며 행선에 들고, 행선을 유지하며 좌선에 드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철칙이다. 자리 이동은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의 이동이 아니다. 거기에는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며, 수행자는 그저 그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하고 관찰할 뿐이다. 김씨는 요즘 먹고 싶다거나 무엇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없어지는 느낌을 갖게 됐다. 불변의 실체는 없으며, 단지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고 김씨는 말한다.

주부 원명희씨(31)는 2시간 여쯤 좌선과 경행을 마친 뒤 노트에 수행하면서 들었던 느낌을 깨알같이 적는다. '행선할 때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 물에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발가락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옆 사람의 움직임 때문에 눈을 뜰까 망설여졌다' 는 등의 행선과 좌선을 하면서 보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옮긴다. 지도 스님에게 점검을 받기 위해서다. 수행을 하면서 아이나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일은 드물어졌지만 계속 말하고 움직여야 하는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보는' 자체를 잊기 일쑤다. 아직도 수행이 생활 속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년째 위빠사나 수행에 몰두해 온 임헌상씨(37)는 다른 수행자들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좌선에 빠져들었다. 배의 호흡이나 움직임 모두가 편안하다. 사물과 움직임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그 실체가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단순함 속에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깨어있다는 느낌은 아직 없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완전히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임씨는 그것을 보기 전에는 수행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과 제자들이 몸소 실천했던 수행법
태국·미얀마등 남방불교권에 전승

어떻게 하나

위빠사나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경행(輕行)인데, 이는 한쪽 벽면에서 다른 벽면까지 걸으면서 좌우 양발의 움직임을 느끼는(관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좌선(坐禪)으로, 숨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걷는다는 것은 발을 들고 내리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단순한 움직임에도 수많은 단계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바로 그 단계를 제대로 보고 아는 것이다. 즉, 발의 움직임처럼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

경행 천천히 걸으면서 양발의 느낌 관찰
발과 손 의식못할 정도로 움직임에 집중

좌선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관찰
어깨 · 가슴 긴장풀고 단전에 집중

보통 좌선을 하기 전에 행선을 한다. 좌선시 배의 움직임보다 발의 움직임이 분명하고 강해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행선을 할 때는 발을 보지 않아야 하며, 손의 위치를 모를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할수록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다. 좌선은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배의 팽창-수축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어깨와 가슴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초보 수행자들은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느낀다. 발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는 이내 잡념에 빠져들고, 또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보니 몸의 중심이 흔들리며 균형을 잃기 일쑤다. 좌선에 들어서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숨이 멈춰지기도 한다. 육체적 통증이 수반되면 '통증'을 알아차리고 '통증'을 주시하지만 곧 '통증'을 놓친다. '통증'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임을 알아차린다면 본격적인 수행과정에 들어가도 된다.

수행자들은 수행을 마친 뒤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날의 수행을 점검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위빠사나 수행처

보리수선원	02-928-2844
봉인사	031-574-5585
태종사	051-405-2626
다보선원	055-331-6118
연방죽선원	02-334-1763
백련사	051-632-8488
한꽃선원	062-222-2841
스리랑카 자비도량	031-944-5902
미얀마선원	02-3427-0087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환경과 불교

4월-생명의 달
· 환경과 불교
· 불가전통의 친환경적 요소
· 생활 속 실천과제

상생길 찾는 불교환경운동



◇대한불교청년회가 구미역에서 낙동강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생명의 젖줄이라는 낙동강을 따라 걸으며 물의 오염 실태를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고, 여기 저기 쓰레기가 뭉쳐 떠다니고, 그 물이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지난해 4월부터 청년 불자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낙동강 원류 따라 도보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도보순례단 유상영(44) 단장의 말이다. 유단장은 낙동강을 따라 걸으며 강물 오염의 현장을 보기 전에는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거나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말을 흘려들었다. 그러나 도보순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졌다. 우선 그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자각했다. 그러다보니 실천을 안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무엇을 해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유 단장은 "계곡에 꽃놀이를 가도 쓰레기가 먼저 보이고, 일회용 사용 안하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철저해졌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을 따라 매월 30km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 청년 법우들도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유단장은 환경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취하듯이 하라"는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을 다시 새겼다. '꿀벌이 꽃을 해치지 않고 꽃가루만을 취하듯 사람도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되 환경을 파괴해선 안된다'는 불교적 환경관을 깊이 인식했고 그것이 행동 변화로 이어진 것.

이처럼 환경 운동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스스로 깊은 자각이 없고 구체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것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일으킨 인간의 변화로 가능하다. 진정한 불교수행과 맞닿아 있는 환경운동은 환경과 나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인의 철저한 변화에서 시작된다.

부산정보회의 환경 담당 최성희(38) 보살도 생태 강좌를 들으면서 위기감을 느꼈지만 선뜻 실천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후 막연한 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가로 변모했다. 세제 덜쓰기, 장바구니 사용, 비닐 포장지 안쓰기, 물 절약 등 작은 실천에 부처님의 공생, 상생의 길이 다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 보살의 경우, 개인적 깨달음이 불교환경운동으로 확대되는 핵심임을 잘 말해준다.

천미희 기자

오대산. 운강석굴 6일

■ 출발일 : 2002년 5월 23일, 30일 출발 - 95만원 !
■ 오대산의 가장 좋은 계절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 · 운강석굴 순례!! 6일

제 1일 : 인천 - 북경 - 석가장
인천출발 : 중국의 수도 북경 도착, 북경출발 석가장 도착 후 호텔투숙

제 2일 : 석가장 - 오대산
중국 선종 화두의 대가로 유명한 조주선사의 관음 원인 백림선사, 우리나라 선종의 원류인 임제선사의 임제사, 당대 황제에 의해 건립된 개봉사 등 참배 후 오대산으로 이동 문수보살성지 오대산도착 및 호텔투숙

제 3일 : 오대산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오대산중대(해발 2,890미터)등정, 2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현통사, 영취봉의 보살정,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메밀로 조성된 신비로운 문수보살상을 모신 수상사, 오대봉우리를 참배하는 공덕이 있는 대라정(케이블카), 석조의 일부분이 아름다운 용천사, 오대산 남대 금각령에 위치한 붉공 삼장이 건립한 당대 국찰인 금각사 등 참배 후 호텔투숙

제 4일 : 오대산 - 대동
오대한 출발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국 최고의 장엄한 9층 응현 목탑 북악 항산 금릉계곡 절벽에 매달린 신비로운 현공사 참배 후 대동 도착 및 호텔 투숙

제 5일 : 대동 - 북경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5만여 불상 들을 새긴 운강석굴, 고색 창연한 화엄사등 참배 후 북경으로 이동 호텔 투숙

제 6일 : 북경 - 인천
역대 황제들의 궁전인 거대한 자금성, 천안문광장 순례 후 공항으로 이동 . 북경 출발, 인천 공항 도착 후 해산

● 포 함 사 항 : 항공, 호텔, 식사, 입장료, 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등
● 불포함사항 : 인천공항세
※ 구 비 서 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함)
※ 여권이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구화산, 황산 4박 5일
▶출발일 6월 4일 - 8일 ▶순례비 : 87만원

아미산. 대족석굴 5일

■ 순례기간 : 2002년 5월 22일 출발 - 87만원 !

제 1일 : 인천 - 중경
인천출발, 중국 중경 도착 후 아령공원, 양자강, 조천문 부둣가 등 중경시내 관광

제 2일 : 중경 - 대족 - 아미산
중국4대석굴의 하나로 유명한 보정산 석각-대족석굴 순례 후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으로 이동 호텔투숙

제 3일 : 아미산
불광화현으로 유명한 아미산 금정(3,077m)을 케이블카 이용하여 등정, 와운암 ,화장사 등 참배 후 하산하여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최대장엄하신 보현보살을 모신 만년사 참배, 하산하여 보국사 참배

제 4일 : 아미산 - 낙산 - 성도
낙산으로 이동, 당대 조성된 높이 71m인 세계 최대 미륵보살인 낙산대불 참배 후 삼국시대 촉나라 도읍지인 성도로 이동, 유비묘와 제갈공명을 모신 무후사 참배

제 5일 : 성도 - 인천
두부초당 순례 후 공항으로 이동, 성도 출발, 인천 공항 도착 후 해산

선종사찰순례 10박11일
▶출발일 : 6월 13일 - 23일
초조 달마대사의 소림사, 2조 혜가대사의 이조사, 3조 승찬대사의 삼조사, 4조 도신대사의 사조사, 5조 홍인대사의 오조사, 6조 혜능대사의 남화사, 운문사, 진여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조주선사의 백림선사등 이외 중국 선종의 발자취 순례

SILKROAD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티베트. 수미산순례

짙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황금탑과 거대한 포탈라 궁전, 전설의 불교왕국, 신들의 세계등 티베트는 신비의 베일에싸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과 아뇩다지로 지칭되는 마나사로바 호수등 경전상에 나오는 수미산의 세계를 찾아보는 일정으로 특히 올해는 12년만에 한번 맞는 성스로운 해로 업장소멸 및 수미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미산 순례 17박 18일
▶ 출발일 : 6월 15일 - 7월 2일 ▶ 순례비 : 359만원
▶ 일 정 : 인천 - 성도 - 라사 - 시가체 - 라체 - 사가 - 파양 - 마나사로바호수 - 수미산 - 파양 - 사가 - 라체 - 시가체 - 라사 - 성도 - 인천

■ 티베트 일주 10박 11일
▶ 출발일 : 6월 15일 - 6월 25일 ▶ 순례비 : 239만원
▶ 일 정 : 인천 - 성도 - 라사 - 티베트 최초의 삼예사원 - 간체 - 시가체 - 시가 - 장무-카투만두-인천

항상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크로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상 원 합장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㉓

운석충돌과 대멸종

환경파괴 운석충돌 피해 못잖아

열대우림 지역 매일 74종 소멸
"여섯번째 대멸종 시작" 경고
불법 익혀 올바르게 살아야

1908년 6월 30일 새벽 시베리아 중부 퉁구스카 지역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굉음이 울리면서 열풍이 불고 마차가 80리를 날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구 소련 과학원 탐사팀이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사방 120리에 걸쳐 숲이 타고 쓰러져 황폐화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정도로 큰 피해가 일어나려면 세계 2차대전 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40개 규모의 위력을 가진 폭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운석충돌로 보고 그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운석의 잔해를 발견치 못해서 이 사건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면 지상에 운석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과거의 운석충돌의 기록을 조사해 보면 지름 100m의 운석은 수천년에 한 번정도 떨어질 확률이며 그 충돌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800배이고, 1천m 크기의 운석은 10만년에 한번 꼴이며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억 8천만 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10km 크기의 운석은 1억년에 한번 꼴이고 충돌 규모는 히로시마 원폭의 18억 배이다. 매년 1번 꼴로 떨어지는 운석 충돌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천 분의 1로 적지만 300년에 1번 꼴로 떨어지는 운석충돌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43배로 높다. 지구 전체에 재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운석충돌은 100만년에 한번 꼴이며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천 4백만 배에 해당한다.

1980년 미국의 알바레즈 박사는 크기가 10km인 유성체가 초속 40km의 속도로 지구에 들어와 충돌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4억 배에 해당하며, 충돌로 생기는 구덩이는 지름이 약 400리~500리 정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충돌의 결과로 많은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먼지 구름으로 지구를 덮어 햇빛을 차단해 식물의 성장이 어려워져 먹이 사슬이 끊어진다. 그리고 삽시간에 일어나는 거대한 열풍으로 많은 산림과 가옥이 파괴되고 대기 오염으로 산성비가 내리며 햇빛 차단으로 빙하기가 닥친다. 이 결과 지구에 생물의 대멸종이 초래된다. 알바레즈 박사는 이러한 규모의 큰 운석충돌로 6500만년 전의 공룡 대멸종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멕시코 정부는 유카탄 반도 북쪽 해안지대에서 유전탐사를 위해 오랫동안 항공기로 중력탐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칙쇼루브를 중심으로 지름 180km인 지하 운석 구덩이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그 지역에 흩어진 운석 잔해의 분석에서 6500만년의 나이가 나왔다. 이것은 알바레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즉 4억 5천만년 전, 3억 6천만년 전, 2억 2천만년 전, 2억 천만년 전 그리고 6500만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앞서 4번의 대멸종 사건들은 운석충돌 보다는 지구 자체의 지각 변동에 따른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6500만년 전의 공룡 대멸종도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때부터 이미 공룡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운석충돌을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카탄 반도에서 일어난 거대한 운석충돌이 공룡의 멸종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진기로 밤하늘을 찍어 보면 작은 소행성들이 많이 관측된다. 이 중에서 지구부근 소행성이라 불리는 천체들은 지구 공전궤도 안쪽까지 들어온다. 따라서 이들이 지구의 인력권에 들어오면 큰 운석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소행성탐사 관측을 계속하면서 지구에 접근 가능한 천체를 찾고 있다. 만약 이런 천체가 발견되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핵장치를 한 인공위성을 이 천체에 접근시켜 파괴시키거나 또는 궤도를 바꾸어 지구와 충돌을 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외계천체와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은 부의 창출을 위해 스스로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 전체의 7%인 열대 우림지대의 파괴로 매일 약 74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기에 사회 생물학자인 윌슨은 "인류가 단 한 세대만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종(種)들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써 여섯 번째의 대멸종을 시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아욕, 아만, 아집을 지닌 '삶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종의 생명에 큰 관심이 없고, 또 외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면 먼저 올바르게 죽는 법을 아는 것이 불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인데, 모두가 잘 살고자만 하는 욕심 때문에 내외로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그림 · 문병성

이렇게 들었다

"명단공개 · 고발센터 운영"

고위층 불법호화묘 여전

장묘문화 개선과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정 · 재계와 학계 등 기득계층의 불법 호화묘지 조성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법묘지를 만든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 설치 실태를 조사했던 종교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등 36개 단체로 꾸려진 '생활개혁실천협의회'는 불법 호화묘지를 만든 유족 17명에게 불법 사실을 통보하고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7명만 답변을 보내왔고 나머지는 묵살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사법 홍보가 부족하고 자치단체마저 위법 행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도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벌여 불법 호화묘지 설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고발센터(www.life21.or.kr, 02-773-0416)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화장과 납골묘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1954년에 3.6%이던 화장율은 91년에 17.8%, 2000년엔 33.7%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변화는 상황의 급박함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미미하다. 이웃 일본의 화장률은 99%, 태국 90%, 기독교국가라 할 영국도 68%나 된다. 이제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범망경)임을 깨달아 장묘문화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릇 죽음이란 형상이 무너지되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환난으로 여기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보배로 여겨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싫어함이 없구나. <불설보요경>

▨사람은 한 번 죽지않으면 안 된다. 빛은 한 번 어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주의 가르침이다. 일체 세계에 태어난 것은 모두 사(死)에 돌아간다. <열반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⑥

깨어남 체험-의심 사라지고 평안이…

절실하게 갈망하라

오늘날 불법(佛法)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견해(見解)를 구해야 한다. 만약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와서, 수승(殊勝)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승함에 도달할 것이다.

마음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의식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때이다. 그 이전의 공부는 알음알이로 찾고 느낌에 의존하며 의지로 밀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모두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유위행(有爲行)이다. 이러한 의식적 행위는 공부라기 보다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으로, 아직 길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공부의 시작은 길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선 지나야 할 중요한 관문은 길을 찾는 것이다.

마음공부의 길을 찾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범부들은 의식이라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이 꿈이 무상하고 허망하여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꿈에서 깨어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깨어남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여 깨어난다는 가르침을 찾는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깨어남을 여전히 꿈속의 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 번도 깨어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악몽을 꾸는 경험을 돌이켜 보자.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는 꿈이다. 저기에서 무서운 이빨을 보이며 짐승은 다가오는데 다리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짐승은 점점 다가오고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이때쯤이면 모르게 크게 고함을 지른다. 바로 그 순간 홀연 잠에서 깨어난다.

마음공부에서 길을 찾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현재 의식 속에서 깨어남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하여 얼른 깨어나고 싶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도 꿈에서 깨어나질 않는다. 이제 짐승은 코앞에 다가와 무서운 입을 쩍 벌린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 절박한 심정에서 나도 해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라는 꿈속의 일로서 실제 깨어남에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오직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깨어남을 갈구하는 것만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아닌 깨어남의 체험을 가져다준다. 깨어난 뒤에 보면 깨어남과 의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만, 깨어나기 전에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면 깨어남이란 의식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깨어남에 대하여 어떤 상상도 하지 말고 그저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막연하게 그러나 절실히 그 깨어남을 갈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갈망이 충분히 익어서 때가 되면 어떤 뜻밖의 기회에 문득 깨어남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때야 그는 이 체험이 전혀 뜻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한 것으로서 자신이 막연히 원해온 바로 그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의심과 갈망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남는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의식적 삶도 깨어남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고 늘 사용하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공양 Offering 향 Inc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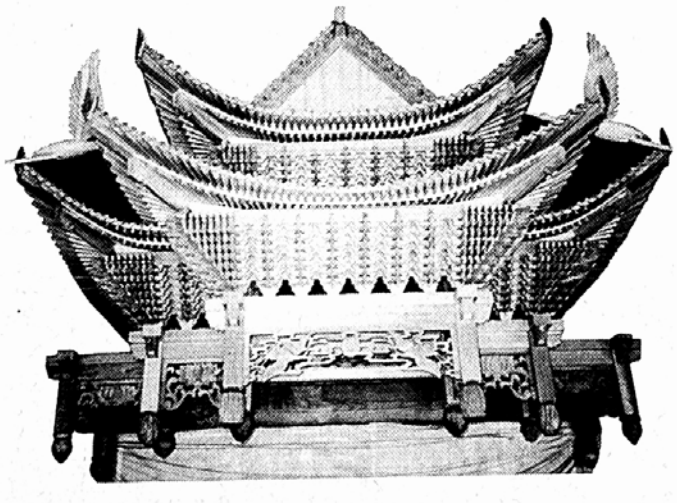
In Buddhism, incense has particular meaning of liberation. Incense is not simple taken as a material but as a symbol of nirvana and buddhists bum the incense as an offer. Candle light or lantern is a symbol of wisdom in Buddhism.

불교에서 향은 해탈의 의미를 가진다. 향은 단순한 용품이 아니라 열반을 상징하며 불교신자들은 공양의 의미로 향을 태운다. 초나 등의 빛은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한다.

Flowers bring fruits at last. As flowers, liberation is accomplished by endless efforts. And flowers are symbolized as efforts. Fruits are compared to the end result of liberation, enlightenment. Therefore we are taught to learn from the flowers that result fruits after full blooming: studying Buddha's teachings. Practicing mind and Bodhisattva's compassionate actions.

꽃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해탈은 끝없는 정진으로 완성된다. 이와 같이 꽃은 정진을 상징한다. 과일은 해방과 깨달음의 결과로 비유된다. 그러므로 꽃이 만개한 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과 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누리공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제 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화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46-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제1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신청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 분	대 상	인원	상 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1 명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시, 소설, 국문학(희곡, 방송국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1 명	3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1 명	300만원

2. 구비서류 : ①신청서 또는 추천서(지정양식) ..... 1 통
②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 1 통
③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2년이내 실적자료) ..... 1 통
3. 제 출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편번호 137-070)
☎ 02)586-6521~2 FAX 521-9948
3. 신청마감 : 2002년 6월 30일
4. 심사 및 발표 : 본 재단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5. 시상일 :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 永 云

목어 보리수는 '고련수'



며칠 전에 읽은 중국 오대에 활약한 영조스님의 법문이 너무 인상 깊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떤 스님이 영조스님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누게 된다. "'깨달음의 나무(보리수) 아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데 어떤 것이 깨달음의 나무입니까?' 영조스님이 대답하길 '꾸준하게 연마하는 나무(고련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묻길 '어째서 꾸준하게 연마하는 나무와 같습니까?' 스님이 말하길 '본래 훌륭한 말이 아닌데 어찌 채찍의 그림자에 수고를 끼치는가?'"〈경덕전등록〉

우리는 깨달음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돈오니까 어느 순간에 불현듯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더하여 꾸준한 수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정한 천재나 타고난 사람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몇몇에 불과한 소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영조스님의 법어는 시사성이 많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이니 증권이니 복권이니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통계상으로도 그것은 천만분의 일에 의지하는 게임과 같다. 그렇다면 일확천금을 얻어 화려하게 살려는 생각에 들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연마하는 나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변은 그런 사람들로 넘치며, 이 사회가 그것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위화감 속에서 적지 않은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지니게 만들며, 부패한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제도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들의 의식을 짓눌러도 되는 것인가. 영조스님의 법어처럼 꾸준히 연마하는 나무를 키우는 사회, 정직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가꾸는 것임을 잊지 말자.

차차석(동국대 역경위원)

불자 세상보기

문명 발전과 폭력의 관계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영원한 안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메타포가 정당하다면 '폭력은 찬양합만한 영원한 생명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정서와 마찬가지로 폭력 역시 인간의 비합리적인 정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공격성이 '생명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신경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기 전부터, 철학자들은 폭력성이란 생명력, 창조성의 표현으로 이해해 왔다. 사실 인류의 생존의 역사는 두 가지 투쟁의 기록이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투쟁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에 대한 투쟁의 역사'이다. 앞의 것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뒤의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폭력을 제도화한 것이 국가이다. 토마스 홉즈가 〈리바이어던〉에서 '정의 · 불의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압적인 권력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홉즈가 의도했던 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homo homini lupus)'이라는 자연상태의 인간의 폭력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필연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제도적인 폭력장치인 국가의 등장은 폭력의 행사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작은 개인적인 폭력이 보다 큰 제도적인 폭력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의 생명 권력인 폭력권 행사의 기회가 봉쇄됐고, 긍정적인 생존 감정인 공격성은 사라졌으며, 개인은 영리하지만 유순한 동물이 됐다. 이런 조건을 '문명화'라 부른다.

그러나 문명이 진보하면서 제도적인 폭력 역시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게 진화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 없는 안정과 평화의 지속'이라는 현대의 보편적 기획은 '폭력 장치의 정교화'에 다름 아니다. 문명화된 평화로운 세상이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 개인의 폭력이 통제된 상황이지, 폭력이 소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문명화된 세상에서 폭력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국가 철학자들의 희망은 아주 순진한 발상이다. 과학 · 기술 문명이 폭력을 키우는 토양이라는 사실은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체르노빌의 재앙에서 명백히 확인하였다.

지난 3월 발간된 〈사이언스〉 최신호는 TV시청과 폭력성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논문을 실었다. 이 연구는 뉴욕주 북부에 사는 707명을 청소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관찰한 결과 청소년기에 하루 1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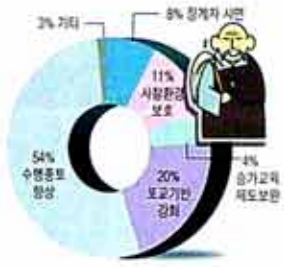
폭력, 그것은 도덕적 일탈일까 아니면 심각한 정신질환일까. 19세기 사람들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정신이상'으로 이해했다. 신경과학과 정신병리학이 발전한 20세기에 와서 그것은 '정신병적 성격장애'로 규정되었다. 폭력적인 사람의 정서생활은 혼란스러우며, 온전한 도덕적 감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방출되는 충동과 욕구는 언제나 이기적이다. 행실은 도덕적으로 몰염치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다. 폭력적인 인간은 이기적 욕구를 정당화하는 데 자신의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문명의 이기(利器)인 텔레비전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디지털 문화가 제도적인 폭력 기구인 국가와 세계체제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준다는 긍정적인 징후와 더불어, 홉즈가 걱정했던 야만에로의 복귀라는 부정적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디지털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폭력성의 증대, 그것은 개인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 없는 상태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우슈비츠와 같은 거대한 인류적 재앙을 불러오는 국가 내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요구일지도 모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조계종 종정



3월 26일 조계종 제 11대 종정에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이 추대됐다. 붓다뉴스 설문에 동참한 81명의 네티즌 불자 가운데 44명(54%)은 종정스님

"수행풍토 향상 주력해야" 54%

이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승단의 수행풍토 향상을 꼽았다. 또한 17명(20%)은 포교기반 강화를, 9명(11%)은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7명(8%)은 징계자 사면을 통한 종단 화합을, 4명(4%)은 승가 교육의 제도 보완이라고 응답했다.

조계종 종정의 임기에 대해서는 60명(74%), 현행 5년(1차 중임가능)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임연태 기자

열린마당

21세기 승가교육방향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일 발간한 〈승가교육〉 제4집에서 '21세기 승가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청정승가상 구현의 길'을 특집으로 다뤘다. 여기에서는 기초 · 기본 · 재교육 · 승가고시 등 네 분야에 대해 모두 8편의 글을 싣고, 현 승가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다음은 기초 · 기본교육과 승가 고시에 대한 능허 · 월호 · 법산 스님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능허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승가기초교육 내실화 방안

행자교육의 목표는 승단에 첫발을 내딛은 초발심 행자들에게 수행자로서 평생 지녀야 할 소양을 습득케 하고 출가정신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점차 조직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실에 맞춰 승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행자가 과거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번뇌를 비우지 않아 출가생활을 중시하지 않거나, 본사나 말사가 행자를 사찰 유지를 위한 노동력이나 문중세력 확장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발심·출가 의미 유지되게 유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사찰에서 행자교육을 담당하는 스님과 행자간의 면담이나 교육 점검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둘째 사중 스님들이 행자들의 마음을 잘 살펴 보리심을 굳건히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초발심의 중요성과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수행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셋째 행자 스스로가 항상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야 하고, 행자교육지침서에 입각한 기초교리강좌를 본사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강의해 그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자교육원 정상화도 필수적이다. 현행 행자교육 교과과정에서 '불교사 개설' 과목을 신설해 불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승가교육을 항상시키기 위해 교수사 및 습의사의 자질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월호스님(쌍계사 강사)



강원교과과정 개선안

강원과 대학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삶과 교육의 분리냐 결합이냐에 달려 있다. 즉 강원 교육은 삶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강원의 교과목은 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토록 뛰어난 교육여건을 제대로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실상사의 '작은학교'는 강원교육 체계에 그대로 적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일반교과를 자꾸 늘려 대학식 교육을 답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서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체험교과 같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정규과목으로 설정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실상사 '작은학교' 적용해볼만

3단계 학제를 가진 대안학교는 현대식 교육 방법과 전통 강원식 교육 방법을 병행해 전문학림이나 동국대에 진학할 사람과 선수행 할 사람을 동시 양성하고 있다. 교과체계는 일반교과와 체험교과, 주제교과로 나누어진다. 일반교과에서는 중학 3학년 과정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가르치고, 체험교과에서는 직접 농사일을 해 자치적인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나무 다루기 등을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역사문화기행 등을 통해 세상에 대한 경험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주제교과에서는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 아침 명상과 몸 다루기를 통해 자기 발견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작은 학교 모델은 대학식 교육과 전통식 교육 방법을 하나로 묶는 사례가 될 것이다. 삶과 공부가 하나로 연결된 공부야말로 현대 승가교육이 추구할 바다.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승가고시 시행 의의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승직 및 승과제도가 국가에서 과거에 준하는 인재 등용의 기회가 됐다. 승과제도를 통해 불교는 선 · 교학 승려를 배출하고 고려불교와 민족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학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명조대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승과고시가 실시돼 서산, 사명 등 훌륭한 승려를 배출했다.

불교 도입 170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불교는 한민족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혜와 덕성을 갖춘 훌륭한 승가가 많이 배출돼야 하며 엄격한 승가교육과 도제양성은 필수적이다.

근래 들어 교육체계가 확립되고 각급 승가고시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3급 승가고시는 승가교육의 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3급 승가고시는 산림 내에서 정규 교과 및 전통대중생활을 겸비해 여법하게 치러졌다. 다만 이를 기회로 향후 2급 및 1급 승가고시의 원만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계 품수자를 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종단 요소 요소에 배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승랍 1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승가교육 전문화와 다양화로 대변되는 본격적인 승가교육이 시작돼야 한다.

1급·2급 승가고시 정착시켜야

좋은 명당을 만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흑 명당육氣방은
좋은 명당터가 되도록 합니다.
절터, 집터, 공장터, 상가(점포)터에
좋은 명당이 되도록 하십시오.
地氣와 生氣가 응집되지 않는 터는 악터나
사기터 이므로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조상의 묘지터를 좋은 명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터란 氣가 없으면
명(命)을 다한 것이므로
잘 되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 명당육氣방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사찰 암자 철학관 풍수학 氣학문을 하시는 곳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 카우스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秉也(연년 불로 선경악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령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세계 유일 불교 일간지… '人間福報'

대만, 본지 20만부·자매지 미주판 Merit Times도 1만부

세계 유일의 불교 일간지를 아시나요.

불자들은 국내외에서 많은 불교 주간지와 월간 및 계간지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불교 일간지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를 것이다. 주 3회 발행되는 일본의 〈중외일보(中外日報)〉가 있지만, 실질적인 세계 유일의 불교 일간지는 대만의 〈인간복보(人間福報)〉다.

불광산사의 성운(星雲)대사가 2000년 4월 1일 창간한 〈인간복보〉(발행인 의공(依空)스님)는 대판, 12면으로 발간되는 불교 일간지다. 대만내에서 20만부나 발행되는 〈인간복보〉는 미주지역에서도 영문판 〈Merit Times〉를 1만부 발행할 정도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광고면을 최소화(1면 정도)하고 국제불광회의 포교기금과 구독료(약400원)로 운영되는 〈인간복보〉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사회와 국가를 정화해 인간정토(人間淨土)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교리(覺世)는 물론 시사, 종교문화, 경제, 교육, 사회, 문예 및 향토, 가정 및 복지, 독자논단 등으로 지면을 채워 기존의 언론관행과는 다른 지면을 구성하다보니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정토'를 추구하는 불교 종합일간지인 <인간복보>의 1면.

정토구현에 적합한 미담 위주 보도
발행인 의공 스님 인간불교 구현 목적

오염된 언론매체 가운데에서 진선미를 추구하고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을 보도이념으로 하는 〈인간복보〉. 사회의 미화 및 정화, 지인용(智仁勇)의 인생교육, 자비심의 확산, 인연과보(因緣果報)의 강조 등을 4대 지표로 삼고 불자들에게 지혜를 전승할 불교내외의 덕있는 인사들을 모아 법열을 느끼도록 하며 아프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위안을, 괴로운 이들에게는 광명과 희망을 주고 있다.

발행인 의공스님은 "우리는 새롭고 균형있는 보도로 자비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의 온정과 광명을 반영하며, 세상을 맑게 하고 인심을 교화함으로써 부처님의 본뜻인 인간불교(人間佛敎)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발행목적을 명쾌히 정리한다.

한편 미주지역에서 발행되는 〈Merit Times〉는 2000년 7월 16일 창간되었으며, 역시 12면 발행에 1만부의 부수를 자랑하고 있다. 주로 LA를 중심으로 한 국제불광회 회원들의 예약구독으로 운영되는 〈Merit Times〉는 지역에서 유력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Chinese Daily News〉와 제휴해 발행 및 배포하면서 보급망을 넓히고 있으며 캐나다, 중앙 및 남아프리카까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인간복보〉는 100만여 가구를 자랑하는 두터운 불광산사의 신도층과 국제불광회의 조직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5개가 넘는 국내의 불교 주간지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포교매체임이 분명하다.

대만=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3월 29일 중국 법문사 스님과 경찰의 호위속에 까오슝 불광산사 대웅전에 모셔진 불지사리(가운데).

佛指사리, 다시 중국 법문사로

대만전역 전시중 4백여만 명 참배

37일간 대만에 모셔졌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가락 사리(佛指舍利)가 3월 31일 불자들의 환송속에 중국 본토로 돌아갔다.

불지사리는 이날 오전 대만 까오슝(高雄) 시립경기장에서 10만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환송법회를 마치고, 까오슝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통해 이운됐다. 이 불지사리는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와 중국 백림선사 정혜선사를 단장으로 한 대만 및 중국불교계 대표단의 호송을 받으며 홍통을 거쳐 중국 섬서성 법문사에 안치됐다.

불지사리는 그간 대만 전역의 여러곳에서 전시돼, 약 400만명의 참배객을 맞았다. 이날 환송법회에도 10만여 불자들이 하루전부터 철야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렸다.


◇중국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판첸라마(좌)와 겐둔 최끼 니마.

중국, 새 '판첸라마' 옹립

티베트 인정 소년 거부, 신문·TV 홍보 개시

중국은 티베트 망명정부에 의해 1995년 5월 11대 판첸라마로 승인되었던 소년(겐뒨 최끼 니마)을 거부하고, 그 해 12월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소년(겔첸 노르부)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 나섰다고 티베트 인권단체들이 잇달아 폭로했다.

최근 관정의식이 베이징의 용허 사원에서 치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판첸라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법회 후에는 11대 판첸라마의 대형 사진과 기사들이 신문을 뒤덮었으며, TV를 통해 장시간 보도됐다. 신화 통신사는 겔첸 노르부가 150여 명의 불자들과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서 온 환생자들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10대 판첸라마가 89년 1월에 서거한 후 같은해 4월 25일 출생한 겐뒨 최끼 니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정치적 유배자이다. 중국 당국은 겐뒨 최끼 니마는 현재 안전한 지역에서 조용히 그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소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판첸 라마는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 다음의 지위로 죽은 후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존재다.

미주 禪대학원 원불교, 9월 개교

총장에 고윤석 씨



미국내에서 선과 명상, 그리고 불교응용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최초의 불교대학원이 문을 연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미주선학대학원(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총장 고윤석·사진)은 오는 9월 정식 개교에 앞서 선응용학과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선과 명상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과 불교의 건강, 의료, 상담 등의 응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는 최근 미국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펜실바니아주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대학원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인과 함께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선학대학원(www.woninstitute.org)은 2년 석사과정으로서, 졸업후 선과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석사학위가 주어진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TOEFL 성적이 550점 이상인 자며, 6월15일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0011-215-884-8942, info@woninstitute.org

새 계간 불교잡지 '붓다 다르마'

샴발라센터, 8월 15일 창간



◇붓다 다르마>의 표지.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불교 신행단체인 샴발라(Shambala)센터 국제본부는 기존에 발행해오던 격월간 〈샴발라 선(Shambala Sun)〉에 이어 새로운 계간 불교잡지 〈Buddhadharma(佛法)〉를 오는 8월 15일 창간한다.

〈샴발라 선〉이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샴발라와 티베트 불교 위주로 보도해 온데 반해 이 잡지는 티베트 불교 이외에도 한국, 중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불교를 골고루 다룰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뉴욕 맨하턴에서 리셉션을 갖고 설명회를 가진 〈붓다 다르마〉 편집진들은 서구 불교사회가 성숙해 가는 만큼 불교에 완전히 귀의한 독자들이 불교를 더욱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면을 꾸밀 예정이다.

〈붓다 다르마〉 메크리우드 편집인은 "각국 고승들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여러나라 불교 전통과 활동에 대한 소식을 실어, 다른 전통의 수행자들간의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편집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창간취지를 밝혔다.

한편 30여년 전통의 〈샴발라 선〉은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계간 〈Tricycle〉과 함께 미국불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해외 불서



• 도시로부터의 질문, 숲속에서의 답변(Questions from the city, answers from the forest): '서구의 스님으로 배우는 단순한 가르침'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시카고에서 태어나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다, 태국 승단으로 출가한 아잔 수마노(Ajan Sumano) 스님의 법문을 기록한 책. 특히 1994년부터 이듬해까지 태국의 코야이 국립공원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하는 영어권 여행자들과의 문답을 엮었다.

금욕생활, 성욕, 자아, 기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수년간 펼쳐진 대화들은 서구인들에게 적합할뿐더러 그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신지학(神智學)출판사 펴냄.



• 최후의 여행(Ultimate Journey): 저자 리처드 번스타인이 깨달음을 찾아 아시아를 횡단한 당나라 현장스님의 흔적을 추적한 책. 629년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난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정신적, 육체적인 도전을 극복해가는 저자의 현대적인 여행은 현장법사가 추구한 고대의 탐구와 우아하게 접합되며 독자적인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이 책의 첫부분에 보이는 지도는 저자가 가로지른 중국에서부터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의 기나긴 여정을 암시해 준다. 저자는 그 길에서 만난 실크로드와 성스러운 사리탑과 사원들을 산과 강,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 Knopf Alfred A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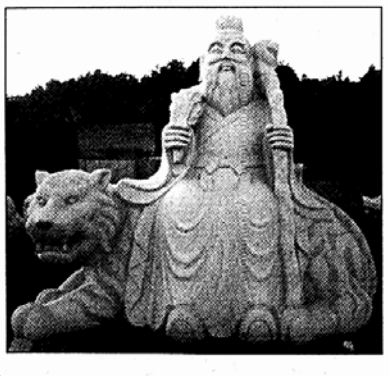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아 윌등이 밝고 절전 요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영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塔, 생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불광산사는 수시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위문잔치를 연다. 사진은 4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온거루(공양간)에서 어르신들을 초청, 공양을 베푸는 모습.

대만은 인구 2200만의 나라이다. 공식적으로는 불교(311만), 도교(198만), 기독교(48만), 천주교(29만), 회교(5만)의 종교비율을 갖고 있지만 도교 신도를 포함한 70% 정도가 잠재적인 불자들이다. 대만 불교는 무종교를 표방하는 24.2%(대부분 젊은층)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만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유교, 도교를 합한 것에 전통적 중국 토착신앙까지 포용하는 대만 불교가 최근에는 복지, 의료사업을 앞세운 현대화로 새로운 중흥을 맞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만 불교는 '세계 속으로(IN THE WORLD)'라는 구호 아래 국제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불광산사와 정사정사의 복지불사를 소개한다.



◇자제공덕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지역, 콩고 지진현장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제공덕회 태국분회 회원들이 환자를 위문하는 장면.

대만불교, 복지불사로 '신뢰받는 종교' 우뚝

복지·의료사업 통해 현대화…새 중흥기
"세계로" 구호아래 국경 넘어 지원 확대



◇불광산사는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시에는 즉각 전사차원의 구호에 나선다. 지난 99년 9·21 대지진 현장에서 천도재를 올리는 스님들.

불광산 자비기금회

자비·무상보시가 사업원칙
아동복지~장례까지 서비스

85년 이동의료센터 설립
12개국 30곳서 10만여명 치료

■ 불광산 자비기금회

1967년 까오슝현(高雄縣)에 불광산을 개산한 성운(星雲)대사는 '자선복리(慈善福利) 사회'를 하나의 목표로 삼아 자선당과 자선원을 세우고 복지불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은 89년 10월 까오슝현 정부가 재단법인 불광산자비기금회(이사장 자용스님, 이하 자비기금회) 설립을 허가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불광산사는 자비기금회 설립이전부터 30여년간 자비와 무상보시의 원칙아래 복리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의료봉사와 자원봉사를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아동복지에서부터 노인복지, 장례복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정토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불광산사의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해 온 자비기금회는 88년 6월 타이베이(臺北)시 수산사(壽山寺)의 자선원에 본부를 두고 의료복지, 인심교화, 자선사업 등 3대 분야의 사업을 펼쳐왔다. 재난구조, 의료사업, 임종간호, 사회교화,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의 모든 보살행은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광산사와 자비기금회가 펼치는 복지불사는 다음과 같다.

불광의료원 및 이동 의료센터

1976년 설립된 불광의료센터는 불광산사의 사부대중은 물론 지역 주민,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진료과목은 전통 침술과 서양의 약물치료, 치과, 안과 등 규모는 크지 않지만 훌륭한 장비를 갖춰 매년 3만3천여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운수의원(雲水醫院)으로 불리는 이동 의료센터는 1985년 설립됐다. 의료차량을 이용한 순회 의료봉사는 대만 구석구석의 오지에 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500대의 의료차량을 갖출 계획인 운수의원은 처음 15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1995년 현재 운수의원은 12개국 30개 지역, 98개 마을에서 10만여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불광산 자비기금회의 이동 의료봉사 차량들. 차량을 추가로 확보, 5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

불광산은 1976년부터 재난과 사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물질적 금전적지원과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구호단을 운영해 왔다. 1995년에는 1만여명이 긴급구조단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자비기금회는 15년간 저소득자와 불우이웃들에게 금전적 물질적 지원과 무료 의료서비스, 위문법회 등을 제공하는 겨울 구호 캠페인을 펼쳐왔다. 1995년의 경우 1735 가구가 구호품을 받았다. 불광산의 자원봉사단체인 우애단(友愛團) 회원들은 격주로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펼친다.

대자육유원(大慈育幼院)

1970년 버려진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설립됐다. 30여년 동안의 노력으로 대자육유원은 현대식 사무실, 기숙사, 부엌, 식당, 진료소, 법당, 도서관 등을 갖춘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거듭났다. 현재 7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40명과 22명의 소녀가 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아이들도 들어있다. 불광산사의 지원금과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운영되는 대자육유원은 국가 보육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상장을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다.

난양인애지가(暖暘仁愛之家)

30여년동안 난양인애지가는 820여명의 외로운 노인(평균연령 70세)들을 봉양해 왔다. 현재 기거하고 있는 70명의 노인들은 대부분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불광산 공등체는 이 사업으로 1983년 국가 '천교의 상'을 수상했다.

만수원(萬壽園)

납골묘원인 만수원은 7개의 주제별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1층은 장례식을 위한 네 개의 홀로 구성되었으며, 2층은 임종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6개의 호스피스 병실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5개의 층은 5만여기의 납골함을 수용하고 있다.

■ 靜思精舍 자제공덕회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자제공덕회는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의 신도 및 자원봉사자들이 증엄(證嚴)스님의 지도아래 부처님의 이상을 이 땅위에서 실천해 가는 독특한 불교조직이다.

1966년 4월 14일 대만 보명사에서 불교극난자제공덕회로 출범한 자제공덕회는 초기부터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했다. 자제공덕회는 1969년 5월 화련에 정사정사(靜思精舍)를 건립, 이 때부터 법회를 통한 본격적인 신도교육을 시작했다. 1972년에는 화련시에 최초로 자제부설 빈민진료소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비롯한 의료 사회사업을 시작했다. 그후 1980년에 재단법인 불교자제자선사업기금회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불교재단법인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했다.

1985년에는 자제미국분회가 설립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외국분원이다. 1986년에는 불교자제종합의원이 낙성되어 종합적인 무료 의료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모두 무료로 치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데 이 전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1989년에는 자제간호전문학교를 개교해 간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1990년에는 남자 자제위원이 중심이 된 '자성대'가 전국조직으로 확장되어 활동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 1992년 자제대전청년연의회, 자제전업교사연의회 등 청년조직과 교사조직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1993년에는 골수기증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94년에는 자제의학원을 개교해 의사 및 의료인력을 배출하게 됐다. 1997년에는 대만 원주민 보호를 위해 원주민건강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1999년에는 대만에 7.4의 강진이 발생하자 재난 구호를 위해 자제공덕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사랑의 집 자제대애옥 2,000가구를 지어 기증하기도 했다. 2000년도에는 자제대학을 개교해 의료 인력 및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자제공덕회의 주요 사업은 자선, 의료, 교육,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지역사회사업 등 크게 8개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업은 의료 사회사업으로 병원건립, 의료 전문인력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운동과 지역사회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자제공덕회에 골수 기증을 서약한 사람이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자제공덕회에 1회 이상 후원한 경험이 있는 후원자는 약 400만 명이 넘고, 100만 명 이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대만=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대만 화련시에 소재한 불교자제종합병원.



◇자제공덕회 창시자인 증엄스님이 지진피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저금통을 선물하며 위로하고 있다.

정사정사 자제공덕회

주요사업 골수기증등 8가지
세계 신도·자원봉사자 300만

99년 대만강진때 인력총동원
사랑의 집 2천가구 건립 기증



◇자제공덕회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불교자제종합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㉑ 제10 법사품

고원천착의 비유

〈법화경〉에는 모두 열 여섯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 하나인 '고원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 즉 '고원 천착의 비유'가 제10장 '법사품'에 들어 있다.

'법사품'에서 석존께서는 바이샤라자(藥王) 보살에게 〈법화경〉의 위대함에 대해 설한다. 그 가운데서도 〈법화경〉의 신앙에 의해 최고의 바른 깨달음이라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가까이 갈 수 있음에 대해 설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요약하면, 〈법화경〉을 설하고 읽어주고 노래해 주고 옮겨 쓰며 〈법화경〉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라도 일곱 가지 보배로 된 탑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탑 속에는 부처님의 유골(舍利)을 두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법화경〉에는 여래의 전신(全身)이 있기 때문이다. 이 탑을 꽃(華)·향(香) 등 갖가지 물건으로 공양·존경·존숭·찬탄해야 한다.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것을 고원서 우물파는것에 비유

이 탑에 예배·공양한다면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감을 알아야 한다.

여래의 전신(全身)이 〈법화경〉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법화경〉이 여래 그 자체를 설한 경전임을 지적하고, 다시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 모두를 성불시킬 수 있는 경전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에 재가든지 출가든지 보살도를 수행하는 경우,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믿어 간직하고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도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 아니며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보살도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 된다고 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믿고 이해하며 간직한다면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보살도 수행의 중심이 〈법화경〉 신앙임을 지적한다.

〈법화경〉 신앙으로 최고의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석존께서는 고원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를 들어 설하시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타서 물을 필요로 하여 고원(高原)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한다고 하자. 마른 흙을 보면 물은 아직 먼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노력하며 계속 파서 차츰차츰 습기가 있는 흙을 보고, 이렇게 하여 점차로 진흙에 도달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물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안다."

이상이 고원천착의 비유이다. 〈법화경〉 자신은 이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수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최고의 바른 깨달음은 아직 멀다고 알아야 한다. 만일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고 사유하며 수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최고의 바른 깨달음은 모두 이 〈법화경〉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이 〈법화경〉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창고는 깊고 견고하며 깊숙하고 아득히 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달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부처님은 보살을 교화하여 성숙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열어 보이는(開示) 것이다"라고 한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의 법을 열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성불을 지향(志向)하고 보살에게 최고의 바른 깨달음은 당연히 〈법화경〉에 소속되는 것이다.

이 '법사품'은 앞의 9장 '수학무학인기품'까지와는 그 내용이 크게 달라져 〈법화경〉을 받아들여 간직함과 그 넓힘이 테마로 되어 있고, 경전 성립사상(成立史上)에서도 이 '법사품'에서 제22장 '촉루품'까지를 한데 묶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보살행의 실천을 설하는 이 한 덩어리의 부분이야말로 〈법화경〉 본론의 중심부라고 하여 이 한 덩어리의 맨 처음 부분인 제10장을 기점으로 〈법화경〉을 재검토하려는 사람도 있음을 말해 둔다.

▩무설정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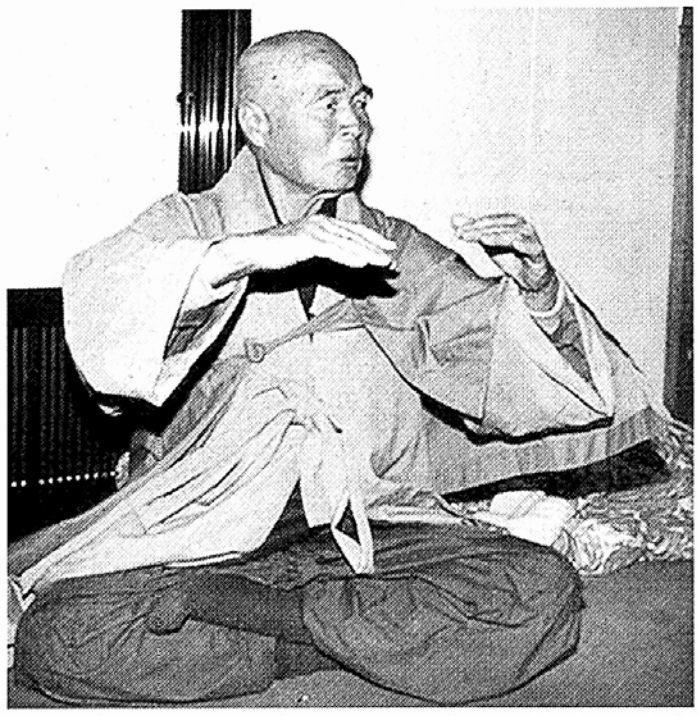


◇정공스님이 27년째 주석해 온 덕유산 극락사의 전경.

의심하나 간절히 일으켜

전북 장수의 덕유산 자락에 숨어있는 극락사. 이 곳에 주석하시는 정공스님을 친견하는 길은 미로와도 같은 여정이었다. 3월 16일 주말에 출장아닌 출장(?)을 가는 기자의 마음은 미지의 세계를 찾는 구도자의 심정과도 같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막연히 큰 스님이 계시다는 말만 듣고 절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재가 불자들은 물론 수좌들의 친견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욱 기자의 신심에 불을 붙였는지, 물어 물어 길을 가는 시골 정경이 정겹기까지 했다.

오후 5시경 도착한 극락사는 덕유산 자락 아늑한 숲에 포근히 감싸여 있었다. 토굴처럼 허름한 극락사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자, 한 비구니 스님이 인기척을 느끼고 나왔다.



◇중생계의 고통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하며, 구경각을 향한 치열한 정진을 늦추지 않고 있는 정공스님은 극락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다.

정공스님은?

수행경력 특이…田岡문하서 화두 타파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선사의 맏상좌이자, 인천 용화선원 원장 송담스님의 사형인 정공스님은 염불삼매와 화두삼매를 함께 터득한 특이한 수행이력을 갖고 있다.

1920년 11월 19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구룡리에서 태어난 정공스님은 5세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했으며, 18세에 염불삼매를 이루었다. 염불삼매를 이룬 후, 이 세상을 정토의 세상으로 가꾸고자 출가를 발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선지식을 만났으나, 자신을 인도해 줄 스승을 만나지 못해 몇해동안 방황하다 29세에 전강(田岡)선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출가하기에 이르렀다. 전강문하에서 '이뭣고' 화두와 '판치생모' 화두를 타파한 후 '정공은 이미 오후사(悟後事)를 마쳤다'는 인가를 받았다.

1975년 전강선사 열반후 무주 원통사를 복원하고 장수 극락사에서 주석하고 있다. 법명은 정공, 법호는 지공이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 등 30여명의 상좌를 두고 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정공스님 (극락사 조실)

"어디서 왔어요?"

"네, 저는 서울 현대불교신문 기자인데요, 큰스님을 친견하고 싶어 왔습니다."

"큰스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냉정한 비구니 스님의 말에 주춤하며, 기자는 "큰스님이 숨은 도인이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고 말했다.

"글세, 큰스님은 언론이나 공개적인 법회에 일체 나서지 않는다니까요."

반복되는 스님의 거부와 기자의 간청이 이어졌다. 결국 법음을 듣고 새롭게 발심할 불자들을 위한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자, 스님은 이윽고 객실로 기자를 인도했다.

"일어나는 망념 무엇이든 상관말고 두려워도 말라 '옴마니 반메훔' 진언염불 말법시대 알맞은 수행법

객실에서 비구니 스님은 큰스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근대의 선지식인 전강(田岡 永信, 1898~1974) 선사의 맏상좌로 염불삼매와 화두삼매를 동시에 체득하고서도 평생 울력만 하며 30여년간 극락사에서 은거하고 있다는 정공스님. 8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경각을 이루기 위해 홀로 치열하게 정진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행자 스님이 준비해 준 저녁 공양을 먹으며, 정공스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이번 걸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다담을 한 참 나눈 7시경 밖에서 나는 인기척, "주지 있는가?"

"네, 스님 들어오세요. 손님이 왔어요."

이윽고 들어선 노스님. 극락사 조실 정공스님은 기자가 상상하던 근엄한 모습의 큰스님이 아니었다. 남루한 작업복에 줄로 멘 바지끈. 방금 울력하다 온 차림 그대로 소탈한 모습이었다. 자비스런 미소를 띤 스님에게 3배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했다.

"참선과 염불은 다 공도리(空道理)야."

참선이나 염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무슨 방편이든지 100% 몰입해야 견처를 얻을 수 있다는 정공스님은 "지극히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 받았을 때,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마음으로 쉼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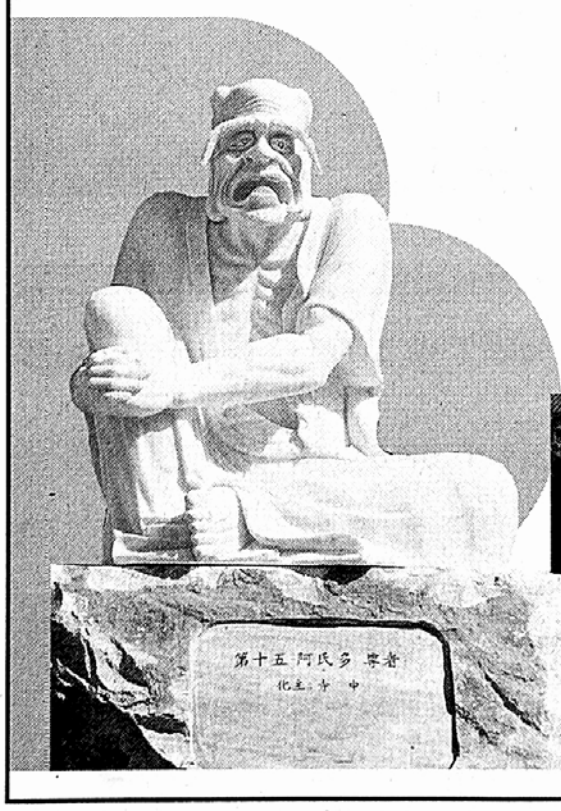
신도들로부터 받는 보시의 무서움을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스님은 '시주만 축내고 공부하지 않은 스님들이 지옥에 많이 있다'며, 철저하게 스님들의 의식주를 직접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시사철 혹독한 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가까이서 모시는 상좌들이 배겨나기 힘들다는 것이 시봉하는 스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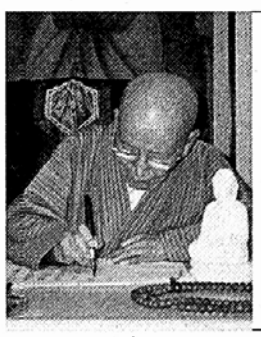
1920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한 정공스님은 여느 스님과는 다른 특이한 수행이력을 갖고 있었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김일순 보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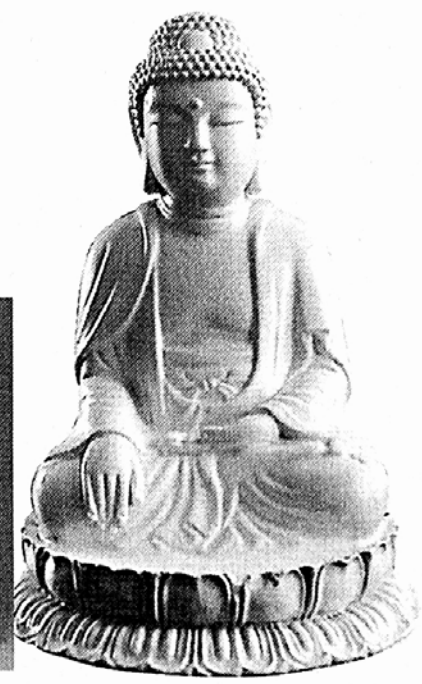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國寶
慈悲하시고 遠慮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불기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訥 西翁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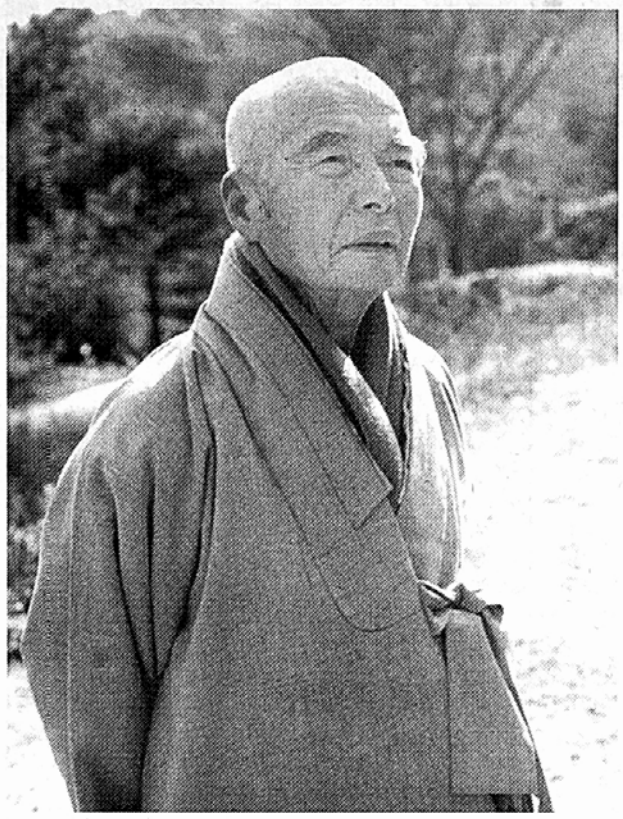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줘야



◇정공스님은 "아미타불의 미묘본심을 깨친 자라야 능히 미묘한 법을 깨닫고 자재함을 얻어 중생제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살의 영향으로 영문도 모른 채 다섯 살부터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부르며 절에 다녔다. 11세때 대구로 전학하고 서당에도 다니면서도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염했다. 나이가 들면서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알게 되면서 더욱 염불 정근에 힘썼다. 나중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얼마나 외웠던지, 꿈속에서도 염불이 이어져, 18세에 염불삼매에 들었다고 한다그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라는 스님의 신신당부에 따라 생략).

염불삼매를 얻은 후 스님은 성인이 되자,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고자 출가를 발원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선지식을 만났으나, 스승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다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 선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출가인연이 맺어졌다.

해인사 설법전에서 처음으로 전강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들게된 정공스님은 전강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기로 마음먹고, 법문이 끝난뒤 스님이 계신 방문을 똑똑 두들겼다.

"누구냐?"

"큰스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들어와라."

정공스님은 삼배를 올린뒤 간절한 마음으로 전강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제가 출가하려고 3년동안이나 스승을 찾아 헤매었는데, 오늘에야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꼭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전강선사는 정공스님을 보고 한눈에 법기(法器)임을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활구선(活句禪)으로 한국의 근세 선풍을 드날린 전강선사는 이때만해도 경허-만공으로 이어지는 덕숭산문의 가풍을 잇는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정공스님은 전강선사를 따라 곡성 태안사에서 계를 받은 후 6년간 무주 안국사에서 홀로 정진했다. 이 곳에서의 수행은 '내가 곧 부처'라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했다.

공부를 마친 후 인천 용화사로 스승을 찾아가니 전강선사는 "이제 정공은 용화사에서 나를 시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부터 정공스님은 전강선사를 모시고 수행하며, 스승으로부터 '판치생모(板齒生毛)'라는 화두를 받고 화두일념에 빠졌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묻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하니 답하시되, "판대기 이빨에 털이 났느니라(板齒生毛)" 하셨다.

그러면 조주 스님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을까? 이 화두도 '무자' 화두와 같이 '판치생모'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치생모'라고 말한 조주 스님의 뜻에 있는 것이니, 정공스님은 이를 참구해야 했다. 스승인 전강선사는 화두드는 법을 이렇게 설하곤 했다.

"화두가 잘 된다, 잘 안된다, 망상이 생긴다, 마음이 산란하다 등의 생각이 있으면 화두의 순일지묘(純一之妙)가 없게 되는 것이니, 일어나는 망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상관도 말며 두려워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는 그저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만 간절히 간절히 일으킬 것이며, 없어지거든 또 일으키고 부지런히 끊어지지 않게 자꾸 이어주어라."

스승의 가르침대로 화두를 지어감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정공스님은 화두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판치생모'를 타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너무나 수월하게 본참공안을 타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공스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염불삼매로 득력한 선정력이 화두삼매마저 용이하게 터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화두를 타파하고 보니, 화두삼매와 염불삼매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공스님은 학인들에게 화두와 염불에 있어 호흡법에 주의하고 단전에 의식을 집중할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화두·염불 삼매는 다르지 않아
호흡 유의·단전에 의식 집중을

'판치생모' 타파로 스승의 인가를 받은 후, 전강문하에서 절차탁마하던 정공스님은 전강선사의 열반이후 인천 용화사를 떠나 토굴정진에 들어갔다.

23세에 견성한 후 당시 6대 선지식인 혜봉, 혜월, 한암, 응성, 보월, 단공 선사들과 거량하며 인가를 받은 전강선사. 25세에는 만공 선사로부터 법맥을 전수, 전법게를 받았던 스승은 1975년 1월 13일 인천 용화선원에서 입적에 들기 전 정공스님에게 "내 법을 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공스님은 스승의 입적 후 3년간 인천 용화선원에서 대중을 지도하다 1978년 3월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 주석하며 정진에 들어갔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화두가 잘 된다, 잘 안된다, 망상이 생긴다, 마음이 산란하다 등의 생각이 있으면 화두의 순일지묘가 없게 되는 것이니, 일어나는 망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상관도 말며 두려워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는 그저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만 간절히 간절히 일으킬 것이며, 없어지거든 또 일으키고 부지런히 끊어지지 않게 자꾸 이어주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켰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3년간 용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3년간 용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3년간 용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



◇연꽃 문양을 넣은 인테리어 조명등.



◇다과나 과일을 담기에 알맞은 쟁반.

한지의 아름다움 '삶 속으로'

보광 스님, 동국대 갤러리서 '한지공예展' 15~20일

한지는 마술사다. 부드럽고도 질겨서, 엮고 구기고 비트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회화에서부터 종이 공예, 서예, 조소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지는 유리 대용으로 창문에 바르고, 조명등을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부채나 지화, 지폐, 부적 등의 재료로도 사용됐다.

15일부터 20일까지 동국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보광스님 한지공예전'에 가면 이러한 한지의 우수성과 다양성,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공예전에서는 쟁반, 인테리어 조명등, 3층장, 연꽃등, 문갑 등 한지 공예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공예품들이 주로 전시돼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3개월~6개월만 배우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쟁반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다. 한지공예품이 완성된다.

이번 전시회를 마련한 보광 스님(한지공예가 · 아산 보광암)은 "사라져가는 한지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한지의 우수성을 알려 대중들에게 보급시키고자 이번 전시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한다.

작품을 만들 때 마음을 집중하다보면 삼매경의 상태에 들게 돼 수행의 기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보광스님은 앞으로 한지공에 보급을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계속 열어 갈 계획이다. (011)9135-3512

인테리어 조명등 · 쟁반등 30점 전시

우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쟁반, 문갑 등의 틀을 구입, 합지를 재단 조립해 틀을 완성시킨 후 다시 틀에 맞춰 한지를 재단해 붙이면 된다. 이런 공정뒤에 문양을 오려 붙인 후 코팅을 하면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북 탱화장 도원스님 지정

탱화 부문선 처음, 33년간 300여점 그려



불화가인 도원스님(53세 · 김제 청운사 주지)이 6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탱화장에 지정됐다. 전북지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로 탱화장이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도원스님이 처음 붓을 잡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불사에 꼭 필요한 탱화를 타인에게 시주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정진스님(前 남원 실상사 주지)을 찾아가 사사받은 것이 탱화에 입문한 계기다. 현재까지 33년동안 스님은 3백여점이 넘는 탱화를 그렸다. 이중 스님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작품은 '전북 태고종 종무원 영산보존회 괘불', '제주 원당사 대웅전 불화' '군산 은적사 후불신중탱화' 등이다.

"제주 원당사 대웅전 불화 등 큰 보람"

도원 스님은 "참선을 할 때 삼매에 들듯이 붓을 잡고 삼매에 들면 환희심 가득한 상태에서 불화에 몰두하게 된다"며 "탱화는 단순한 불교미술의 차원을 넘어 경배의 대상인 만큼 손끝의 재주만으로는 빼어난 불화를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도원스님은 현재 전북불교대학과 전북지역 주요 사찰에서 '불교미술'을 강의하고 있다.

불교 연극 '염화미소' 무대에

진관 스님 각본, 5월 3~12일 명동 창고극장



◇나무꾼이 행자를 거쳐 고승이 돼 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염화미소'.

효(孝)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그래서 출가를 원하는 이들은 한번쯤 속가의 부모님과 출가라는 대명제 사이에 번민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출가자의 세속적 갈등과 수행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 번민, 그리고 극복과정 등은 출가자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조각들이다. 이런 과정들을 사실적으로 조명한 한편의 불교연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대에 올려진다. '염화미소'라는 제목인 이 연극은 효심이 지극한 나무꾼 행자가 우연한 기회에 스님을 만나 출가하면서 겪게 되는 어머니와의 이별, 출가에 따른 인간적 갈등이 마당놀이 형식으로 펼쳐진다.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명동 창고극장에서 상연되는 '염화미소'는 진관스님(불교문화예술진흥기금마련협의회 공동의장)이 20년만에 각본을 썼고, 김대현씨(창작마을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02)775-0535

김민정 발레 첫 창작품

'하늘천 따지2' 공연

13일 대구 대백예술극장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맘껏 즐기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본 모습을 만나는 이야기는 중국 고사에도 적지 않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얘기나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춘원 이광수의 '꿈'으로 이어지며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꿈 얘기가 발레로 만들어져 무대에 올려진다.

김민정 발레단이 첫 번째 정기 창작 공연 작품으로 '하늘 천 따지 2'를 공연한다. 13일 대구 대백예술극장 대극장 11층에서 공연 될 이 작품은 서당에서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리던 '팽가리'가 꿈속에서 선녀같이 예쁜 각시는 품론 백조 고양이 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꿈이 깨어 서당이라는 현실로 돌아온다는 줄거리.

"삶의 한 단편이면서 초월적 공간인 꿈을 춤으로 해석하면서 본래 자리로 회귀하여 얻는 강한 자아의식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민정씨는 '하늘 천 따지 2'를 통해 현실이 아닌 곳에서의 내가 현실로 돌아오는 찰나적 순간을 흥과 삶의 애환으로 풀어보고자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두차례 열린다. 053)473-5134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합창제에서 '경복궁 타령'을 부르고 있는 부산불교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 '은상'

제7회 국제합창대회 22개국서 44팀 참가

부산불교연합합창단(회장 백명숙)이 3월 24일~28일까지 이탈리아 리바 데 가르다에서 열린 '제 7회 국제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아카펠라 여성합창부문'에 출전한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오분향례'를 비롯해 '이때에 나투신 부처님', '경복궁타령' 등 찬불가와 전통민요 다섯 곡을 불렀다. 이에 앞서 열린 개막식 퍼레이드에서는 한복과 태극기, 부채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과 소품이 곱게 조화를 이룬 복식을 갖춰 입고 입장해 외국합창단과 현지인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인터쿨터 재단이 주최한 이번 합창대회에는 22개국에서 44개 합창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인터쿨터 재단은 음악을 통한 세계 청소년 선도와 교육, 빈민국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1988년부터는 '무지카 운디'라는 이름으로 이태리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국제 합창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리바 데 가르다 국제합창대회'는 '무지카 운디' 행사중 하나로 2년마다 열린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고창 선운사에 갔다.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인 미당 서정주와 판소리의 중흥조 동리 신재효를 낳은 고창의 산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질마재 아래의 서정주 시인(1915~2000)의 생가와 인근의 미당 시문학관에 들러 시인이 남긴 유품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창 읍내의 모양성을 답사하고 그 앞에 있는 신재효(1812~84)의 집 사랑채에 들르니, 판소리의 가락이 바람결에 실려 전해오는 듯 마음에 흥이 일었다. 우리나라 근대 예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시인과 가객이 이 지방에서 탄생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일어났다. 선운사 동구에 이르니 먼저 미당 서정주 시비가 반겨주었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읍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니다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것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선운사 하면 입구에서 본당 뒤까지 길게 군락을 이룬 500년 수령의 3천여 그루 동백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마침 동백꽃이 피기 시작하여 짙푸른 나무마다 온통 빨간 브로치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왜 미당은 동백꽃 얘기를 하면서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을 끌어들였을까?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니 만세루가 앞을 가로막는다. 경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큰 건물은 다른 건물들을 짓다 남은 목재를 가져다 지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소재를 빌려온 윤대녕의 단편소설이 있다. 사랑을 짓다 실패하고 남은 쪼가리 인생의 남녀가 이 번듯한 만세루처럼 결국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 난 길은 시냇물을 끼고 있어서 좋다. 오랜 가뭄으로 왠만한 계곡은 모두 물이 말랐지만, 여기는 아직도 수량이 풍부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법문처럼 계속 따라오며 귀를 간지른다. 문득 고개를 드니 뽑간 동백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오며, 미당의 시가 다시 떠올랐다. 미당의 가슴속에 간직된 동백꽃의 이미지는 흐드러지게 요염한 색과 자태를 지닌 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동백꽃 하면 막걸릿집 여자가 떠오른 것인가?

도솔암 내원궁의 지장보살님께 참배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작은 팻말 하나가 화살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안 온 듯이 다녀가소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겠지만, 정말 멋들어진 경구였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련을 싹 접고 과감히 떨어지는 모습에서 '안 온 듯이 다녀가는' 상징을 읽어내면 너무 멋없는 사람이 될까? 나는 땅에 떨어져 뒹구는 붉고 소담스런 동백꽃잎을 정성스레 사진 찍었다. 제목은 '안 온 듯이 다녀가다(應無所住而生其心)'로 붙여볼까 한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영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부처님오신날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화엄청량소초십지품 삼가본 사기' 봉선사 능엄학림서 출간



'십지품' 부분 현토본으로

조선 학승이 남긴 경학 자료화에 의의

봉선사 능엄학림 2기 학인들이 〈화엄청량소초십지품 삼가본 사기〉(봉선사 능엄학림)를 정서하고 현토한 책을 펴냈다. 현존하는 화엄경 사기는 총 27종 50권이지만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강백인 설파 상언(雪坡尙彦, 1707~1799)과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 인악 의소(仁嶽義沼, 1746~1796) 스님의 〈화엄경청량소초사기(華嚴經淸凉疏鈔私記)〉인 〈유망기(遺忘記)〉와 〈잡화기(雜華記)〉, 〈잡화부(雜貨腐)〉를 정서하고 토를 달았다. 이 중 1차로 '화엄경십지품' 부분만 모아 이번에 책으로 묶었다. 화엄경 사기 전체를 정서·현토하려면 앞으로 4년 정도가 더 걸릴 예정이다.

〈사기〉는 〈화엄경 소초〉에서 화엄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상세히 풀이하고 오자 탈자를 찾아 바로잡아 놓은 일종의 주석서다.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전통 강원에서는 〈화엄경소초본〉을 토대로 〈사기〉를 공부해왔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학제가 축소되면서 강원 교과목에서 사라졌다. 더구나 〈사기〉는 초서에 가까운 흘림체로 돼 있어 판독하기가 어렵고 문장 해독이 까다로워 몇몇 강백스님들에 의해서만 그 맥이 전해져왔다. 이번 능엄학림의 〈사기〉 정서 현토 작업은 조선시대 학승들이 남긴 귀중한 경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책의 뒷부분에는 색인을 실어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했다.

〈삼가본사기〉의 정서 현토 과정은 전통적인 경학연구방법을 따랐다. 먼저 학인들이 초서 형태로 쓰여진 사기 원본을 해독하고 정서해 토를 단다. 그것을 강주 스님인 월운 스님이 감수를 한 뒤 학인들에게 나누어주면 학인들이 논강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정한 것을 다시 강주 스님이 검토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화엄청량소초십지품 삼가본 사기〉의 〈유망기〉는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본과 부산 미륵암 백운 스님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잡화기〉는 백운 스님 소장본을, 〈잡화부〉는 우진 스님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송혜진 지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음악인 '국악'이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하지만 송혜진 교수(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는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다른 세상)를 통해 재미있는 국악의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 모두 7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명사들이 추천하는 국악명곡과 노래음반·연주음반 찾아듣기, 국악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등이 담겨 있다. 값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 우	현 암 사
2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3	참선교육1	현 담	도서출판 선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빙의	묘 심 화	찬 섬
6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	극락은 잇다	관 정	붓다의 마을
9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10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도서 안내:(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정상 禪師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悳 지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휴식' 월호 스님 지음



하루하루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찾게 된다. 하지만 막상 휴식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푹- 쉬지를 못한다. 고작 한다는 짓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뒤적이는 것이 전부이기 십상이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월호 스님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휴식'을 가질 것을 권한다.

〈휴식〉(해들누리)에 실린 글은 1년 6개월 동안 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월호스님의 생활 속의 선' 중에서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모든 스트레스에 0을 곱하자' 등 60여편의 글을 골라 묶었다. '마

"내마음이 쉬면 세상이 쉰다"

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心淸淨 國土淸淨)'는 유마경의 말씀에 빗대어 "내 마음이 쉬면 세상이 쉰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세상도 평화롭지 못하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진정한 휴식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는 월호 스님. 진정한 쉼을 선의 정신에서 찾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2000년 조계종 포교논문 공모에서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던 스님의 「그릇이론에 의한 정예불자교육」을 실었다. 값 8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의 선서화' 지명·이상균 엮음



◇청담 스님 作 '佛'.



현대 고승·거사 42명 작품 수록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 등 귀에 익은 고승대덕들의 대표적 선서화를 가려 엮은 책이 나왔다.

〈한국의 선서화〉(생각의 나무)는 청담, 성철, 서옹 스님은 물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봉, 석정 스님에서부터 최근 대중의 호응을 모으고 있는 원성 스님에 이르는 39명의 스님과 송광무 씨 등 거사 3명의 선서화를 한자리에 모았다. 경봉 스님의 '세계일화', 성철 스님의 '일원상', 서옹 스님의 '수처작주' 등 70여 점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작품마다 자세한 설명을 붙였고, 이에 더하여 스님의 생애와 수행 과정을 전기와 법문, 행장 등을 통해 살피고 있어 작품에 대한 근원적 이해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

부록으로 선서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주 스님과 홍성기 교수(아주대), 최순택 교수(원광대)의 글을 실었다. 범주 스님은 '선서화의 불교적 의미'에서 "선의 목적은 참나를 깨닫는데 있으므로 선묵은 붓을 잡는 사람에게는 구도의 길이 되고, 보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서화의 가치란 기교적 세련이나 예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수행의 공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선보인 선서화는 '2002 세계 고승대덕 발우 선서화 특별전'을 통해 10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개된다. 값 1만8천원.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성법 스님 지음



화엄경 게송에 비춰 본 자화상

성법(용화사 주지) 스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불교경전 총론(www.sejon.or.kr)'에 올린 글들을 모은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를 펴냈다.

작년 여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한 달에 서너 번씩 〈화엄경〉 게송의 해설을 메일로 보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의 〈80화엄경 한글본〉을 중심으로 〈화엄경〉에 대한 해설과 자료, 논문들을 모아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간추려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짧은 시간에 해설을 붙인 탓에 약간은 거칠지만 일상적 표현과 적절한 예시는 읽는 이에게 쉽게 다가온다. 부록으로 스님이 현재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과학과 불교'를 간추려 실었다. 값8천원.

"대승불교 바로 알기 위해 초기불교 이해 필수적"



책과 삶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

맛지마 니끼야 번역 하루 여섯시간 씨름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사진〉 회장은 올 초 큰일을 하나 저질렀다. 팔정도, 연기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문답을 불교 초기 언어인 팔리어로 기록한 〈쌍윳따 니까야〉를 한글 11권으로 완역해 낸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오늘 부처님께〉(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펴냈다. '한 권으로 읽는 쌍윳따 니까야'란 부제가 말해주듯 〈쌍윳따 니까야〉에 실린 2889개의 경전 가운데 122개의 경전을 가려 뽑은 선집(選集)이다. 앞의 책이 상세한 주석을 달아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운 것이라면 이번 것은 최대한 주석과 같은 학술적 내용을 걷어내고 한글 번역을 다시 다듬은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부딪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고민들은 아니다. 예컨대 "딸이 태어나면 실망해야 할까" "종교가 달라 적대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어떻게 버릴까" 등의 의문은 2500여 년 전에 이미 부처님 자신이 고민했던 문제들이다.

전 회장이 고집스럽게 초기불교의 대장경인 팔리어 경전의 한글 번역에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역 대장경은 몇 가지 교리적인 이론을 동어반복적으로 나열하거나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완결주의를 지향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팔리 경전인 니까야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물론 수행자, 바라문, 상인 등과의 질문과 답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음으로 들을 수 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전 회장은 독일 본 대학에서 인도학·티베트학을 연구한 이후 89년부터 팔리어 경전 번역에 모든 것을 바쳐왔다. 92년 경전연구소에 불이 나 〈쌍윳따 니까야〉 1, 2권 번역 원고의 일부가 소실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 초 한글 완역을 끝냈고, 지금도 팔리어 대장경의 다섯 니까야 중 〈맛지마 니까야〉(한역 중아함경에 해당) 번역을 위해 혼자서 하루 6시간 이상을 책과 씨름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경전이란 것도 양파 껍질 벗기듯 핵심으로 다가가 보면 바로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닿습니다. 대승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초기불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아름다운 茶의 세상을 열어갈 차 전문지

茶의 세계

2002년 4월
통권 4호

월간 차의 세계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딩B/D 403호
TEL:(02)733-8076, 8078 FAX:(02)723-7461
각권 5,500원 정기구독료 60,000원

"월간 茶의 세계는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고품격 차전문지입니다"

차와 선 차의 미(美)·차는 물 익혀 먹는 것이다
불교의 차시세계·귀한 차는 몽정차의 맛을 이었고

▸ 차와 문화
차와 문화·'끽다거(喫茶去)'와 다선일미(茶禪一味)
우리 차의 향기 | 매화차·혹한에 풍기는 짙은 향기
우리 차의 원류를 찾아서 | 일본 땅에서 만난 원효의 무애차
세이다이사(西大寺) 대차의식 원효 무애차로부터 비롯되었다

집중탐구 차 한 잔으로 기업환경 바꾼다

차인과의 대화·소남자 김재섭
염제 신농은 동이족
차의 역사는
신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차와 인물
차 한 잔에 담긴 얼굴 | 명노 윤석관
인격이 녹아든 차, 파형미(破形美)를 사랑하는 차인
명인 기행 | 백산 김정옥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이어
다기를 빚는 백산(白山) 김정옥(金正玉)

기획연재
>>조선 도자기의 비밀 ②
재해석된 이도차완(井戶茶碗)의 세계
>>이도차완(井戶茶碗)의 역사 ②
이도다완의 도요지와 조형

지사·지국을 모집합니다
월간 차의 세계와 함께 할 진취적인 전국 지사와 지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지역은 경기·인천·경북·경남·강원·충청·대전·광주지역이며, 아울러 객원기자도 함께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참 선 교 육 (선수행입문서)

♪♬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참선의 목적 (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심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초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지리산 00선사와의 100문 100답으로 구성.
간접적이긴 하나 수행의 깊이에 대한 점검이 가능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②,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질(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낱권 판매 가능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日보물 원효 '판비량론' 最古 신라인 필사본"

고바야시 교수 '日人 필사' 주장 뒤집어

한자 발음 '각필' 신라시대 언어
가타카나문자 한반도 원형설 증거

7세기 말~8세기 초 신라에 유학했던 일본인 승려가 필사해 간 것으로 알려진 원효 스님의 저술 <판비량론(判比量論)>이 신라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동아시아 각필 연구자인 고바야시 요시노리 일본 도쿠시마 대학 교수는 2일 <판비량론>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오타니 대학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판비량론>필사본에서 신라시대 언어와 한자 발음이 적혀 있는 각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교수에 따르면,<판비량론>에서는 특히 한자 발음을 읽기 위한 '문장 부호'처럼 생긴 각필이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각필 문장 부호와는 전혀 다른 모양일 뿐 아니라 한자 발음 역시 한국어로 읽힌다. "일본인이 베낀 책이라면 신라식 각필까지 베낄 리가 없기 때문에 신라인이 필사한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판비량론>필사본. 일본인이 신라에서 베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신라인이 필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또 각필에는 일본의 가타카나 문자와 비슷한 모양의 독음이 달려 있어, 한자를 읽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타카나의 원형이 한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고바야시 교수는 덧붙였다.

현재 일본의 중요문화재(보물급)로 지정돼 있는 〈판비량론〉은 원효 스님이 671년 고대 인도의 논리학인 인명(因明)의 형식을 빌어 유식(唯識)학을 설법한 저술로, 두루마리 형태로 일부 내용이 전한다. 일본 학계에선 가타카나 문자가 서기 800년쯤 한자의 일부를 줄여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앞선 740년 일본 황후에게 바쳐진 〈판비량론〉에서 가타카나와 비슷한 조어 방식을 가진 신라인의 각필이 발견됐다는 것은 가타카나 한반도 유래설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해 은정희(서울교대) 교수는 "7~8세기 경 원효 스님 저술만 50여 권 필사를 해 간 당시 상황을 볼 때 신라인이 베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신라인이 썼든 일본인이 썼든 일본에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 고문서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본에서도 특 A급 학자로, 각필로 새긴 훈점이 일본의 독자적 발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급선회하여 재작년 우리 나라 고려 초조대장경 등에서 발견된 구결(한문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토씨)이 일본 가나의 원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며 "문화사적으로 한국 문화의 일본 전래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면서 최고(最古)의 필사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각필이란

각필은 상아나 대나무의 한 쪽 끝을 뾰족하게 만든 젓가락 모양의 필기구로, 옛날 사람들은 한문 서적을 읽을 때 한자 옆에 발음이나 해석을 알려주기 위해 각필 끝을 눌러 패게 해 문자나 부호를 표시했다. 눌린 흔적만 있을 뿐 색깔이 드러나지 않아 고문헌 연구자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40여 년 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일본에선 원문 한자 옆에 각필로 새겨져 한자 발음이나 번역 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훈점(일명 오코노 점)이 일본의 독자적 발명이며 이것이 점차 가타카나 문자로 발전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눌, 원시불교 정신 유지 깊고 폭넓은 사유체계"

이덕진 교수 '지눌의 마음철학' 발표



모든 개체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기 속에서만 '자아(自我)'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본 붓다는, 마음 역시 절대적 그 무엇이 아니라 존재자의 경험적 속성일 뿐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오며 특히 중국 선불교의 경우 종종 '마음이 곧 부처'라는 설법에서 보듯 마음이 형이상학적 실체로 해석되면서 절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자아 속에 불성으로써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붓다가 떠져 나오려고 한 실재론적인 형이상학론에 빠져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수덕사 부설 한국선학연구원(이사장 법장)이 13일 개최하는 제4차 덕숭선학 학술회의에서 '지눌의 마음 철학 연구'를 발표하는 이덕진(고려대 강사 · 사진)씨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지눌이 마음에 대해 언급할 때 마음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에 대해 실재론적 입장에서 절대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눌의 사상 전체를 일관하는 흐름은 반실재론적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눌의 초기 저작인 〈수심결(修心訣)〉이나 〈진심직설(眞心直說)〉에서는 영원불변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인정하는 듯한 실재론적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년 저작인 〈절요(節要)〉 등에서는 초기의 실재론적 경향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의 저작에서 붓다가 빠져나오기를 지적한 실재론적 사유가 보이는 것은 지눌이 자성을 인간 일반 모두에게 무시이래(無始 以來)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눌은 자성의 시원(始原)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실재론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지눌은 중국불교에 침투한 실재론적 사고에 대한 극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불성으로서의 자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원시불교보다 중국 선불교와 그 특징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붓다의 원시불교 정신을 배반하지 않는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교적 사유체계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태완 부산대 강사, 송인성 고려대 교수, 차차석 동국대 강사, 김호귀 동국대 강사, 박영록 충주대 교수, 김용표 동국대 교수, 최훈동 서울의대 외래교수, 이동한 충북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강사 등 모두 11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고려 광종때 (안성봉업사) 개혁 중심지



◇안성 봉업사지 중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이 있던 장소로 추정되는 건물터(사진 위). 봉업사지에서는 단일 유적으로 가장 많은 454점의 명문기와가 출토됐다(사진 아래).



왕권 강화 · 중앙 집권화 위해 크게 중건
두차례 발굴… 명문기와 454점 출토
왕건 진영 모신 '진전' 위치도 밝혀져

경기도 안성 봉업사는 광종이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중건한, 경기 지역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에 걸쳐 절터 6000여 평을 발굴 조사한 경기도박물관(관장 양미숙)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통일신라시대 목탑터 등 건물터 28곳, 통일신라~고려에 이르는 막새기와 220여 점, 고려 광종대의 독자적인 연호인 '준풍(峻豊)' '건덕(乾德)' 등이 새겨진 명문기와 40여 종 500여 점, 청자, 중국 자기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문자가 새겨진 명문기와 454점은 우리 나라에서 단일 유적으로는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이며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고려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의 위치를 사역의 중심인 오층석탑 북서쪽에서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박물관은 이를 토대로 봉업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화차사(華次寺)로 개창됐다 고려시대 들어 봉업사로 중창됐으며, 고려 제국의 기반을 다진 광종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중심지라고 결론 내렸다.

백종오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광종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주위 호족들을 왕권 아래 규합하기 시작하면서 중심지인 석탑에서 반경 500m 규모의, 대규모 절(봉업사로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전사원의 면모를 갖춘 것도 이 시기"라고 말했다.

해남 미황사

조선후기 대표적 전법 도량



◇미황사 서부도전에 봉안된 설봉당탑(사진 위)과 탑신 문양 탁본(사진 오른쪽).



부도群 조사 스님 28분 행장 밝혀내
벽하 · 설봉 · 연담 대사 등 고승들 주석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은 최근 발간한 〈미황사 부도군 실측조사 보고서〉에서 미황사에서 활동한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 28기와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 5기, 사적비 1기의 실측도면 분석을 통해 미황사에서 활동한 조선시대 스님 28분의 행적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황사는 정유재란이후 17세기 후반의 제2중창에서 1754년 3차 중창에 이르는 100여 년 동안 벽하, 설봉, 연담, 남암 등 무려 9명의 고승이 주석했을 정도로 번창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선시대 부도 연구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18~19세기 부도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도 의의가 크다. 미황사 남 · 서 부도전에 남아 있는 27기의 부도 중 12기가 확실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 시기 다른 부도의 연대 추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양 역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토속적인 문양을 새겨 넣은 부도가 많아 민간신앙으로 발전하면서 대중화한 조선 후기 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간!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족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각권 8,000원

내면 · 외부세계 공심 · 공생 · 공체

▲질문자1: 여기 앉아서 마음으로 집에도 가 볼 수 있고, 미국에도 가 볼 수 있고, 우주에도 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회상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안 가 본 미국이나 우주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올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시라고 이끌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 내가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응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심안으로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즉 말하자면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된다, 아는 사이 없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심안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이 돼 있고 세상과 통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않는다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반쪽으로 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100%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네 나무에서 꽃이 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자기로부터 이익을 갖지 못하니까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생이면서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공한 줄 알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력을 기르라는 거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론으로 캐고 이러려면 뭣하러 여기 이렇게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보아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의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제 뿌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이름이나 형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심안의 줄을 잡는다면, 그 줄이 바로 반야줄입니다. 반야줄을 잡지 못한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깜깜하게 못 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방방방 뛰어도 맑은 물로 대치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면세계를 믿고 한구녘 밖에는 없다, 생사가 나고 드는 구녘이 한 구녘 밖에 없으니 그 구녘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라, 그런다면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현실에 새로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질문자1: 우주 다른 별에는 현재 지구보다 과학 문명이 상당히 발전된 곳이 많다고 하시고, 그 중에서 우주선을 3일 만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타고 와서 다시 없애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현재 지구에다가 도입을 할 수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것도 우리가 모두 마음의 진화를 시킬 수 있는 마음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 정신세계는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고, 지금 현실의 물질 세계로만 올라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편하게 살 수도 있건만 아주 복잡다단하게, 사람이 뛰고 온통 갈기갈기 찢어지고,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삶의 보람이 없이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도리를 알면 신선하게 살다가 우리가 헌 옷 벗어서 빨듯이 새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고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여기 앉아서도 다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다른 게 문명 시대가 아니라 정신 세계의 문명 시대가 우리는 아쉬운 겁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신 세계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재료를 자아낼 수 있는 내 자력이 있어야 연구를 해내지, 천만금을 갖다 준대도 연구를 못해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연구를 해내는 사람은 심안이 조금이라도 틔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생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배워 온 자력의 능력의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속에서 나온것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야

▲질문자2: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공부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이 하는 것을 정말 믿는데도 너무 힘들고, 저를 믿어야 되는데 왜 또 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입니다.

▲스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체험한 거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전자에는 그냥 설법을 했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이 그렇게 힘듭니까? 싹은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싹 한 줄기가 '아이고' 힘들어한다면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뿌리로만이 성립이 되고, 싹은 뿌리가 썩지 않아야 싱싱하고 푸르게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뿌리를 놔두고 잎파리 하나가 바람에 날리면 '아이고, 이거 바람에 또 날리는구나!'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잎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 몸 안에 생명체들이 제각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이론으로 말로 아무리 공론을 해도 그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육안 또는 이론적인 말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거는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마음의 선장한테다가 일임하면은 마음의 선장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런다면,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며,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공생인데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라도 생명이 나와서 따로 삽니까? 따로 살지 않죠? 여러분의 몸 속에서 다 같이 살죠? 그러니 공생이죠?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볼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들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산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모든 거를 합해서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주인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일컬어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 믿고 거기다가 맡기면은 다 거기서 다스려서 해 줄텐데, 왜 그렇게 관리인 심부름꾼이 간섭을 합니까? 서로가 공생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즉 말하자면은 소임을 맡아서 제각끔 하는 겁니다. 같이 말입니다. 나사가 하나가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지금 공용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발버둥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일임하라 이겨예요.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나온 겁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나옵니까? 그러니 시원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내던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불들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경을 보지 말라는 것도 다 나를 발견한 뒤 봐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지, 요게 틀리고 요게 옳고를 따지다 보면 이 공부는 천년 백년이 가도 못합니다. 이건 글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의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때에 따라서 오는 것대로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대치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내가 심안의 소리를 듣고, 심안의 소리가 뜻으로 나오고 모든 게 활용이 됐을 때 그때에 경을 보면은 '아,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발이 되면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해요. 느니라,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배라면 배안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도 중생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죠. 그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이것도 나서고 저것도 나서고, 팥죽 속에 팥죽 방울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을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다 하고 맡겨놔야 잔잔하게 다스리죠. 그래서 배는 닿을 곳에 닿는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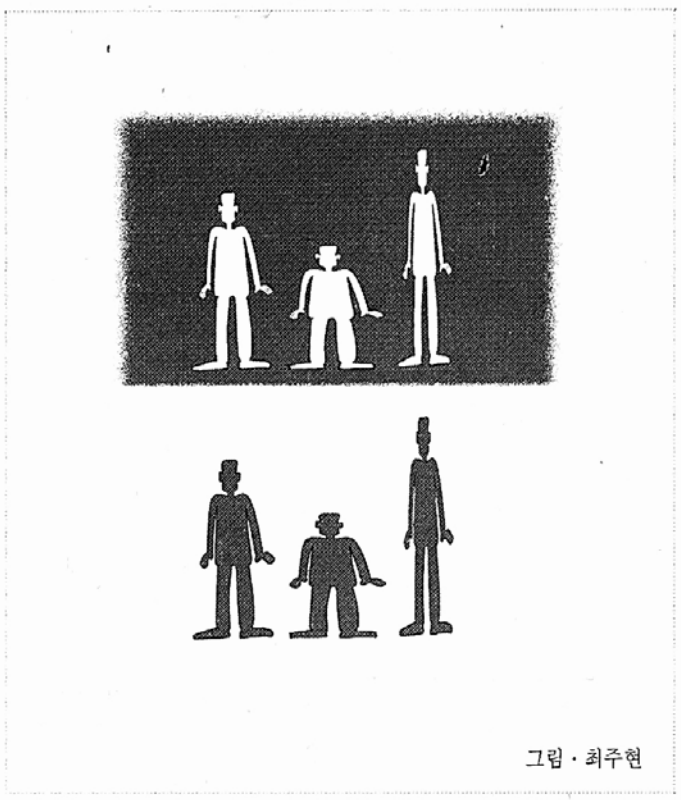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시장에 가더라도 내게 없는 것만 사 오랬지, 누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탐을 내라고 했느냐는 거와 똑같습니다.

▲질문자2: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병신이듯이 병신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것은, 그런 것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다 하고 믿고서 그냥 팽개치고 매달리고 하면서 또 답답한 것은 나머지 반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데, 지금 제가 공부하는 대로 나가면 언젠가는 되는 것인지 그런 게 답답해서요.

▲스님: 왜 걱정을 합니까? 용광로에서 쇠가 나가든가 금이 나가든가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현실에 물질적인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맡겨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꾸어져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모두가 들고나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못 믿어서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의식들을 다스리는 내 마음의 선장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뚱이가 배라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배 안에 잔뜩 들어있는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나도 옳다 너도 옳다 하고 나서게 되면 배가 뒤집히느니라. 그래서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사이 없이 나온다 이거죠.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 급하니까 스님, 마음 좀 내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을 때 그 때나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부족한 듯 생각이 있으면, 무거운 거는 한 손으로 드는 거보다 두 손으로 들어야 거뜬히 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도 다 같이 때에 따라서 한 찰나에 일체제불이 들고나신다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는 거죠. 나툰다는 것이, 같이 응해서 하나가 돼준다 이 소리거든요.

▲질문자2: 제가 마음 맞는 사람과 몇 명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혼돈이 되는 것이, 저 자신도 저를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조금 아는 상태인데, 그 전에도 잘못된 걸 알아서 하다보니까 믿고 따라오다가 그냥 그대로 가게되는 문제가 있어서….

▲스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제도하시는데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관하는 것만 일러주세요. 여러 말을 가르치지 마시구요. 우환이 있거나 애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놓고 '너만이 가난치 않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못났으면 좀 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물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지 않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몇 번 그렇게 해보고 그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생각에 말입니다. 큰 거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 되는데 큰 거는 안 될 거라는 생각, 힘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업을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오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업 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서 입력이 되는 거를 지어버리는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무명천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고는 찾아다니다가 하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볼사천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천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불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놓고 빠져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는 거니까 마음을 다스리면서 조절해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아라 이거죠.

▲질문자2: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나는 이날까지요, '내가 잘되게 해주시요' 하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과 더불어 친구가 된 거지, 그것을 무서워서 피했다면, 귀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되고 이런 거죠. 그러고 조상의 탓을 하구요.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한 생각을 잘하면은 무명천이 아예 없어요.

▲질문자3: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주인공 잡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소부터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잘 지어놓아야 위층이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 생각 마시고 우선에 내 선장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고 체험해 보시도록, 지켜볼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진짜로 믿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자2: 그러고 스님께서 소켓트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파크 하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 주인공과 스님을 둘이 아니게 생각을 하지만 자꾸 스님을 찾으려고 관할 때 마음이,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데 왜 스님을 찾느냐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스님: 하하 그거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때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자식 지간도 그렇고, 가족이 때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래야 만나지고,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찾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꼭 스님이 이거는 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에다 영을 넣으면 영하나가 돼버리고,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진실로 현재에 나오

일체제불 한 찰나에 나고 들어

☞ 18면으로 계속

기쁘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심안의 줄이 바로 반야의 줄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어려운데, 스님께서는 늘 '말겨라, 관하라' 하시는데 더 쉽게 잡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하하하.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송장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자기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천차만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작용하고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이 다르고 그냥 마음이 다르다는 거는 속에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된다. 사대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너부터 알아야 큰 공덕이 되지, 너를 모르고는 절대 공덕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덕이란 뜻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나 하나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에 비로소 공덕입니다.

▲질문자3: 공부하다 보니까요, '놓아야 된다' 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놈이 눈앞에서 깔장거리는데 영 마음이 잘 안다스려집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자식의 물질적인 육신이 까닥까닥하는 거지, 마음이 까닥까닥합니까? 그 육신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다가 놓으면은 슬며시,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지,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육신은 움죽거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놀음을 마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육신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든 공부를 안하든, 걱정하지 않을 원력이 서면 걱정이 안되죠. 권투선수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누가 온다해도 걱정이 안되죠. 만약에 기술이 설 익었으면 걱정이 되죠. 온통 떨리고 부자연하고 무겁고 하지만은, 설익지 않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요. 걱정이 없는 까닭에 그 마음하고 다 통하니까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기면은 걱정이 되지 어찌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온통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걱정이 생긴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육신이 뛰면은 그냥 걱정 없이 해결이 돼버리죠.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쳐놓고 움죽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육신으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면서 사는 세태다 이겁니다.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 앉아있는 그 시간만 우주가 돌아가고 멈추면 우주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 섰으나 앉았으나 누웠으나, 자나깨나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시공이 없이 우리도 일하면서도 뭐가 생각나면은 거기다 놓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뛰란 말입니다.

▲질문자3: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 말로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게 생전 안 잡아지죠. 이 세상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땀을 흘려야 시원하고, 시원하니까 땀을 흘리고 이런 거죠.

▲질문자4: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철대오 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신묘한 우주의 모든 일을 신통하게 된다는데, 그 시점에 대자유인으로서 경계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도에서 얘기하는 삼재원융이나 또는 부작사재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사고에 그 관념을 갖지 않는 예컨대, 부처님한테 착을 둘 것 같으면은 부처에 빠지고 열반에 착을 두면은 열반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무심 또는 아까 말씀을 올린 대무심지의 상황으로 봐야지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언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냥 스님 말씀대로 오면은 치고 또 으면은 받고 경계없이 일상생활을 자연과 같이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실지 실천을 해봐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겪어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낳기는 하되, 그 애가 어른 노릇은 못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애를 생산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 나, 정신을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게 하면은 바로 견성입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안에 모든, 즉 말하자면은 체험을 하면서 자꾸 진행해 나가죠.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또 놓고 들어가야죠. 체험하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라 또 놓고 들어가고 또 놓고 들어가서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그 땐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열반경지에 든다는 것은 둘 아니게 화하고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든지 원하는 자에게 응해줄 수 있는 변재가 필요한 거죠. 즉 말하자면 지금 화해서 진화돼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은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가 되고, 내 육신 속에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보살로 화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도리천에 이르고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말없이도 할 수 있고, 말없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무불통진했다 하더라도 내가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 네 나무서 꽃 필수 없고
>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없다, 오직 나를 발견해서 어른이 되고 또는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띄어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유위법을 가르치고 나서 무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주좌와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합니까? 애고가 오는 데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질문자4: 문자와 언어를 버리고, 관념을 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요, 또 모든 법이 인연따라 생기는 거지만 고정화가 안되니까 공과 유와 다 같다 이쪽으로 원융을 해라하는 얘기가 책에 있구요. 인간이 고와 집을 버리고 도를 떠나서 생멸을 생각하지 않고 열반할 것도 버리라는 그 문자가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끝이 향하는 방향은….

▲스님: 방편이지만 현실이고 현실이지만 방편이죠. 방편이라고 해서 이론을 방편으로 한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질문자4: 그러면은 물 속에 달이 떴는데 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경계하지 말라 하면 그게 정답입니까?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없다고 해야 합니까요?

▲스님: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테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할테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돌부처의 마음이, 저 형상인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만물을 다 응시하시고 비추시고 통하시고 그러는 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통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속에 아무 말 없는 돌부처 안에 부처님의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 생수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어린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예 물을 수도 없는 말이고, 깨우친 사람들끼리 한 소식 얻은 사람 앞에 던지면 탁 알아들어서 받아넘기겠죠.

▲질문자4: 공부를 하면서 특히 제일 의심이 가는 게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되는데, 이 공부할 때는 시공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공부에 더 좀 도움이 될지….

▲스님: 무슨 해결입니까?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화돼서 바뀌는데 시간을 재서 말합니까? 이 사람 만날 땐 몇 시간인가 재고, 저 사람 만날 때 또 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돌아가서 자녠가? 하고, 또 금방 식구를 만나면은 여보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초월된 상태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초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니다 하고 가니까 그런 거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잘하십니다. 천지에 꽃비가 내리는 듯 합니다. 아마 요다음에도 모두 모여서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모두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마. 정말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8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생각 잘하면 무명천 없어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15만원 ■ 2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재질 : 모직(혼50%)
1.적삼, 바지, 쏘매 ₩130.000 / 2.동 방 ₩110.000 / 3.두루막 ₩120.000

하복 재질 : 모직(혼50%)
1.적삼, 바지, 쏘매 ₩130.000 / 2.동 방 ₩110.000 / 3.두루막 ₩120.000

조끼 · 웅베 셔츠



7.조끼, 웅베 ₩50,000 / 7.셔츠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부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초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올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엄선된 재료를 이용해 고올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대합쌍서 생산합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올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본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올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식 6조
1. 체질개선
2. 건강증진
3. 피로회복
4. 완전한 다이어트
5. 완전식사
6. 식습관 개선
(생식요법)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른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빙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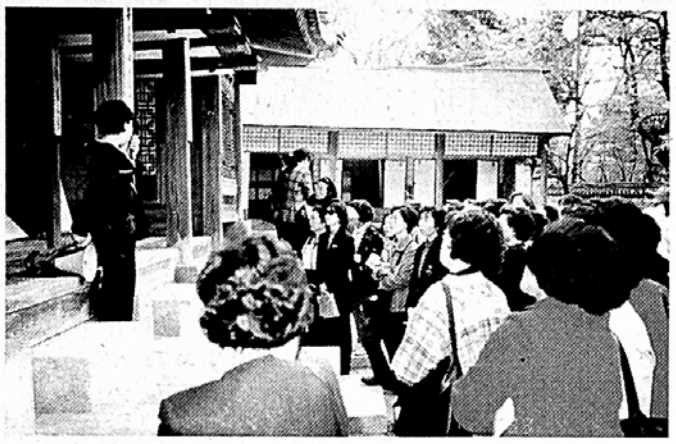
생식 완료 : 현미, 대두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치즈, 수수, 옥수수, 메밀, 참, 양근, 무엉, 신선초, 계절, 참프리, 감잎, 뽕잎, 잡, 초칙,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면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초박맥가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우리문화 보는 눈 트여 즐거워요"

중앙박물관 '여성문화교실' 주부들에 큰 인기



◇여성문화교실에서는 봄 · 가을 한 차례씩 고찰과 옛 절터로 답사를 떠난다.

◈2002년 여성문화교실 일정

월	일	강의내용	강사
4	12	우리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눈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
	19	고고학 이야기	이선복(서울대)
	26	특별전 특강- 몽골 문화의 이해	이평래(한국외국어대)
5	3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추연식(고려대)
	10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인의 생활	최무장(건국대)
	17	유물과 유적을 통해 본 백제의 문화	권오영(한신대)
	24	유적답사	장소 미정
	31	고분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신라의 문화	윤세영(고려대)
6	7	특별전 특강- 일본 미술문화의 이해와 감상	정우택(한국미술연구소)
	14	한국의 불화	홍윤식(서울예술국악고등학교장)
	21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최성은(덕성여대)
	28	한국의 석탑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9	6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이배용(이화여대)
	13	우리 옛 그림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	이원복(미술부장)
	27	한국의 고인쇄문화	박상국(문화재연구소)
10	4	한국의 목공예	박영규(용인대)
	11	유적답사	장소 미정
	18	한국 고건축 양식의 이해	김동현(동국대)
	25	한국의 전통조경문화	정재훈(한국전통문화학교)
11	1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	윤용이(명지대)

불교미술·역사속 여성의 삶·지혜 배워
슬라이드 교육후 관련 전시실 돌며 복습

"엄마, 왜 부처님의 손모양은 다 달라요?"

절이나 박물관에서 아이의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멋진 엄마가 되게 해 주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여성문화교실'이다. 이 강좌는 조금만 늦게 신청해도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9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성문화교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고구려, 백제의 생활과 문화는 물론 사찰 건축이나 불교 조각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불교미술 강의,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매주 교재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강의가 끝나면 그날 배운 것과 관련 있는 전시실을 돌아보며 '복습'한다.

또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전 특강'을 열고, 봄과 가을에는 고찰이나 옛 절터로 답사를 가기도 한다.

5기 수강생인 이선화(46) 씨는 "'고고학의 이해'란 강좌를 듣고 선사실을 관람했는데 전시된 유물과 설명이 쉽게 다가왔다"며 "강좌가 8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우리 문화를 보는 눈을 뜨는 즐거움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됐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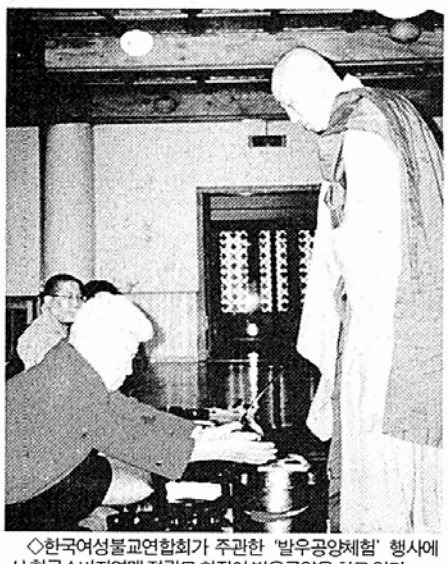
강의가 끝났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성문화교실 수강생들 중 우리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연구반'을 만들었다. 1기 회장인 김정자(58) 씨가 주축이 된 '연구반'은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있다. 이들은 매주 둘째 월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여 미리 정해진 주제에 따라 공부를 하거나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다. 김 씨는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부를 더 해보자고 시작했던 모임이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강의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여성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반혜영(국립중앙박물관 섭외교육과) 씨는 "수강생 대부분이 수업에 대한 이해나 참여도가 무척 높은 편"이라며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자녀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강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4~50대 주부들이 주를 이룬다. 처음 '주부문화교실'로 출발해 올해 8기를 맞는 이 강좌는 이제까지 각 기수별로 200명씩 약 1400명이 거쳐 갔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02)398-5081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주관한 '발우공양체험' 행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음식쓰레기 '無'

여성불교련, 도선사서 '발우공양체험' 행사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주관하고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정광모)이 주최한 '발우공양 체험' 행사가 1일 서울 도선사에서 열렸다.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씨와 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충 씨, 녹색어머니회 윤경석 씨, 여성연구회 윤용수 씨 등 1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발우 공양을 통해 천환경적인 식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처음 발우공양을 해 봤다는 정광모 회장은 "가정에서도 발우공양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식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모임을 제안한 김묘주 회장은 "환경부가 벌이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우 공양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모두 참가해 발우공양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활환경 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수칙'을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왔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환경 수칙 ▩

1. 식단을 미리 계획하여 필요한 식품만 구입한다.
2.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품목의 목록을 만든다.
3.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 검은 봉투에 넣지 말고 투명 용기를 사용한다.
4. 구입한 식품은 즉시 손질해 조리 · 보관한다.
5. 염분섭취를 고려해 식단을 구성한다.
6. 계량 스푼 · 계량 저울 · 계량 컵 등 계량도구를 사용한다.
7. 음식은 가족의 기호와 식사량을 고려해 적당량만 만든다.
8.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다.
9.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진다.
10. 음식쓰레기는 이물질과 철저히 분리해 배출한다.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포교사로서 가야할 나의 길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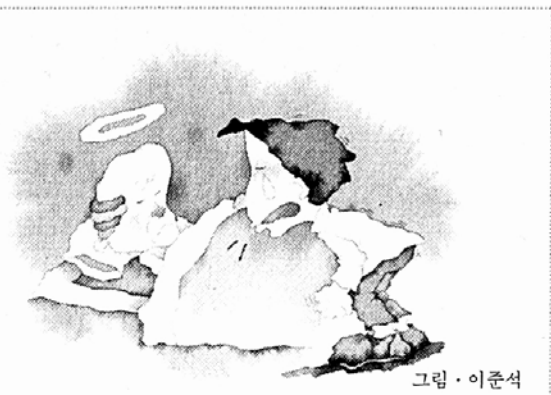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폐결핵 앓으며 도봉사서 참선 · 묵언
결혼후 영남불교대와 인연 … 새 인생

어린 시절 유달리 병약했던 나는 중학생이 되자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아는 분의 소개로 칠곡 도봉사로 갔다.

그곳에서 대웅전 안의 불상을 보며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예불을 드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다. 또 새들의 소리와 온갖 꽃들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에 눈뜨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깨끗한 공기 속에 사는 내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느끼게 되었다. 자연히 잠도 잘 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몸에는 살이 일고 얼굴이 밝아져 이듬해 봄 집으로 돌아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늦게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 대학졸업을 앞둔 4학년 가을학기에 군대시절의 폐결핵이 재발했다. 나는 왜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병을 가져야 하는지 원망하다보니 불면증이 재발했다. 정실질환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친하다는 친구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 세상에 마음을 진정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음을 느끼고 고독 속에 스스로 깊은 사색에 몰입해 갔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아 각혈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 마음의 고향 같은 도봉사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님께 결심을 말씀드린 다음 날 혼자 출가 아닌 출가를 했다. 그곳에서 나는 묵언과 참선을 하며 끊임없이 불법을 공부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 한번만이라도 집에 오라"고 사정해서 하산하게 되었다. 골목 어귀에 걸려있는 초상등불을 보자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하는 직감에 두 다리가 풀려 그대로 망연자실해져 버렸다. 그날이 바로 출상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큰어머님은 나의 호적상의 어머니이고 슬하에 어린 이복형제만 여섯 명이 있었으므로 나는 두 집안의 장남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친어머님은 장남인 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청춘을 희생하며 나와 두 남동생과 여동생을 키워내셨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나는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학교에 나가니 이미 졸업시험도 지나가 버렸고 학우들은 저마다 졸업논문 마무리와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어쨌든 졸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병원에도 다시 나가 처방도 받았다. 완치를 위해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했고 완쾌통보를 받은 뒤 아직 재발 없이 건강하다.

그럭저럭 해가 바뀌면서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까지 했다. 친어머님을 모시고 처와 두 딸의 부양을 책임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 영남불교대학과 인연을 맺은 후부터 나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속)

장만수(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모 집 공 고

1)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자 격
사회복지	사무국장	0명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복지과장	0명	경력3년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생활지도원	00명	초보자 가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신도관리 및 종무행정요원		00명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절에서 숙식가능한 남 · 여
봉사요원 및 농장인부		00명	절에서 휴양하면서 봉사할 분(연령, 학력, 제한없음) 정원사, 조경사, 농사에 유경험자 우대
공양주		00명	주방에서 일하실 분

2) 근 무 지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숙식제공, 월급여 지급, 노후생활보장

3)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합격시 개별연락

4) 필요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졸업증명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봉사요원 및 농장인부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충효사**

전화 : 054)338-5148, 016-503-5148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 원장 초빙

1998년 6월 1일 개원한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은 무연고자 또는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 양육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을 입소시켜 생활 여건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영아/아동(0세~18세) 80여명이 재활교사 30여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위와 동등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는 자
3. 위 조건을 갖춘 조계종 승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접 수

1. 기 간 : 2002년 4월 8일 ~ 2002년 4월 17일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E-mail 접수
3. 접 수 처 : (우)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1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국
전 화 02) 928-0750
E-mail : sgwon@sgwon.or.kr
홈페이지 : http://www.sgwon.or.kr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 (이북성 조현) 와 보봉사 (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참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의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최초로 공개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단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영혼의 안식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춥바음수현 心田 대광사

반야연립주택분양접수

▶ 분양 신청 대상자 : 비구니 승려에 한함

▶ 분양 내용

평 수	13.45평	15.6평	23.57평
세대수	12세대	4세대	2세대
분양가	3,830만원	4,450만원	6,720만원

▶ 공용시설 : 34.85평의 반야선원

▶ 위 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95-1

화개장터 — 3km — 반야연립 — 1km 쌍계사

▶ 준공예정월 : 2002년 7월

▶ 연 락 처 : 055-883-2097
019-530-2097

반야정사 주지 대은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수산스님의 기체험,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매일 오후 7시~9시 수련중
회원모집(지방에 계신분 주 1회 강좌)
매주 금·토 역학강좌 회원모집
www.bulljichon.com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삼명 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도량 공부할 분을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강사
055)932-5706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 017)859-138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7세미만 (천안)
041)523-0025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1)545-2375

비구 비구니스님 토굴에서 무료로 사실분
033)671-0093

부전스님 (비구니) 모십니다
▷20대 초반 서울 교대 위치 포교당
02)583-1080
02)521-1415

기도스님 모심
▷기도하며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구함
055)552-4542
011)855-11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법천사(충북 증평)
043)838-3562
011)486-44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절에서 생활 하실 분)
※ 무식한자는 안됩니다
054)441-0530

포교당을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구함
▷ 태훈사(광주공원내)
062)673-655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6)342-7777

출가하신
행자 및 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위치 : 대 구
053)768-2002
053)768-9464
011)807-0040

모십니다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아름다운 무등암에서는 기도스님, 행자, 사찰 운영하실 화주보살 및 공양주를 모십니다.
061)772-4109
061)772-5401
011)930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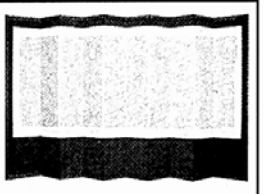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 치 : 대전
• 부지 : 108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억 2천 (산 아래)
02)723-4082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건물만 안내
(시골흙집)
• 위치 : 마곡사 근처
• 가액 : 800만원
• 전세가능
018)330-0242

지리산 토굴 안내
• 위치 : 지리산 물좋고 산세 좋은 기도 암자로 적절
• 꼭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가액 : 천 3백만원
011)577-22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대지 : 88평
• 연혁 및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055)852-4130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남개 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위치 : 부산 • 위치 : 충남
• 법 당 : 15평 • 법 당 : 2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5평 • 요 사 : 50평 • 요 사 : 42평
• 부 지 : 200평 • 부지 : 300평 • 부지 : 735평
• 가 액 : 1억 • 가 액 : 3억 5천 • 가 액 : 1억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자동차 판매
•기아자동차(주) • 현대자동차(주)
스님과 불자님의 모든자동차를 믿고 맡겨 주시면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전화 : 053)521-1100
휴대폰 : 011)509-9456
원응 곽영순 합장

사찰 안내
• 고성 삼천포 앞바다가 보이는 곳
• 평수 : 약 3천평
• 가액 : 4억
011)845-3430
017)844-9448

사찰 터 안내
주위경관 수려하며 절터나 암자 최상급
• 위치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성태산
• 밭 : 470평
• 현재 1차 토목공사 조성
• 전기, 지하수, 관정 시공한 상태 차길 완벽
016)466-2470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오천평, 삼천평등
• 용도 : 사찰, 납골당,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경북 포항시 근교(장기면)
• 특징 : 매봉산하 봉황지리 봉황과 맹호 출립형 사계절 맑은 계곡과 좋은 경관
• 용도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
• 가액 : 평당 5만~10만 (답사 후 절충가능)
054)283-7551~2
011)854-4675

사찰 안내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내
• 조경경관 양호
• 사정상 급매
• 가액 : 4천 5백만원
011)9801-34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귄 대창불교건축 귄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본사 02)595-1573
공장 054)781-4989
HP 016)768-4324 /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이천 시내 (경기도)
(삼존불, 지장불, 후불탱화)
• 건물 : 2층(옥상사용가능:3층)
법당 20평, 방 3개
• 교통편리 : 터미널 3분거리 도로변 인접
• 집기일체 사용가능
• 가액 : 전세 2500만원, 시설비 800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1)387-5858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좌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불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 산 500평 대지 200평 층 700평
• 임법당 1채 1동 이랫채 1동 식당 1동 도량탑 5개와 연못있음
• 가액 : 4,500만원
061)755-0963
019)605-40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5거리
• 건평 : 약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정)
019)534-1127
053)981-4145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동강 근처 준농림지
• 면적 2080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 평당 3만원
(현암자도 같이 드림)
033)378-5713
011)806-4867

사찰 안내
• 위치 : 완도군 약산면 득안리 산 1번지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특징 : 산수수려하고 도로 차 다님 주차장 완비
061)372-083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5분거리)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3억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94평
• 법당 : 45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3억 2천
※ 뒤는 산세 좋으며 앞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3개 사무실 산신각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신설 사찰(급)전세안내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447 • 평수 : 600평
• 시설 : 대웅전 1동, 요사채 방 6개 주방 대형 1개, 욕실, 화장실
• 기(氣) 찜질방(방비석) 40평 수용
• 가액 : 2,000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계약기간 5~10년까지)
• 시설비 : 5,900만원(모든 비품 포함) (현장 답사 후 가액 절충) 월드컵 경기장 바르 옆 도보로 정문 5분거리 주차장 완비, 대덕산 명당자리
※ 주지스님 건강문제 때문에 급 전세
미 륵 사
053)793-5808/017)588-1656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7호광장부근)
• 법당 : 4층 건물 중 4층(70평)
• 시설 : 석가모니불, 호신불 120불
• 가액 및 시설비는 현장 방문 후 별도조정 가능
018)535-7001

탈 종 공 고
• 주 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계원리 298-4
• 사찰명 : 광흥사 • 주 지 : 대 성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불기 2546년 4월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역 입구
• 평수 : 50평 교통주차편리
• 양도가 : 전세 2,000만원 월세 40만원 비품 - 협의 후 결정

사찰안내
• 위치 : 삼천포 입구
• 부지 : 460평(정방형)
• 신축법당 12평 요사 40평
• 창건 12년, 청정한 도량
• 비구니스님 적격
• 양도가 : 2억 2천

사찰안내
• 위치 : 왜관에서 10분
• 부지 : 1,400평
• 대웅전 : 30평(3포형태)
• 산신각 웅황당 요사채
• 웅장한 산세
• 양도가 : 4억 8천

영남지방 컨문 사찰 컨설팅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근교(왜관)
• 법당 15평(단청외 다수)
• 요사채 방 6칸(2층)
• 반지하방 10칸
• 특징 : 기도처와 굿당으로 좋음 낙동강변 방생도량 대구 30분, 구미 30분거리에 위치
011)9372-5977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포교당 안내
• 위치 : 7호선 신대방 3거리역 1분거리 대로변 3층 건물 3층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2)826-1638
011)702-8181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부지 : 2000평
• 법당, 요사채
• 사정상 급해서 보시고 결정
017)576-2387
018)576-3519

탈 종 공 고
• 주 소 :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
• 사찰명 : 법춘사 • 주 지 : 덕 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불기 2546년 4월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뭉경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앞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임야 안내
• 위치 : 경북안동시 남안동 IC 부근 2차선 포장도로에서 약 100미터 차량진입가능(종전에 과수원으로 사용)
• 2180여평. 총 2000만원
054)855-6461
011)522-1122
묘터, 절터가능, 준농림지 가격절충가능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심야보일러) 2동 벽돌,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심야보일러) 3동 육각정
• 특징 : 신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진다화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즐길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절반가격)
011)509-0124

유학자가 별장 겸 서당으로 사용한 건물로써 뛰어난 산세에 보기드문 터와 아름다운 집과 수림을 고루 잘 갖춘 곳입니다. 작은 암자나 토굴로 삼으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대지(287)와 전답(817)은 합쳐 1104평입니다. 위치는 경남 의령 자굴산 자락이며, 진주에서 33km정도 됩니다.
저의 기력 비롯은 2억 5천만원이나 보시고 난 후 약간 협의 할 수있습니다.
문득 인연감이 오는 분은
011)9510-5171로 연락 바랍니다.

복지법인 건립 발언
소승은 복지가의 도움이 이닌 불자 모두의 뜻을 모아 승속을 불문 사부대중의 안식처가 될 목지법인 건립을 위한 일안으로 전국 관광명소를 순회하며 차제 거리, 거리모금을 시작으로 여러 큰 스님을 모시고 백만인 동참불사 대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할 예정입니다. 원대한 불사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신심있는 사부대중을 찾습니다.
· 동참대상 : 비구,비구니, 사이, 사비니, 우바새, 우바니
본원의 복지 법인을 동참 사부대중 공동체로 법인 등기할 예정입니다.
· 연락처 : 무애불언 043)543-6848
011)9973-424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한강 나루터 전철역 5분거리
• 법당 : 100평이상
• 방 4개, 사위, 주차장 완비
• 보증금 3천, 관리비 70만원
※ 몸만들어 오면 됨
02)2201-0796
017)390-0909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5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포교당 안내
• 위치 : 왜관 시내 요지 밑 전세 시설비 합 2500만원
• 법당 : 20평, 방 1개
• 비구니 스님, 보살 적지 교통편리
011)9797-8923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3-1
• 부지 : 약 10000평 이상
• 신축 대웅전 20평, 요사채 1
• 실 2억 7천, 가액 1억 7천 전세도 가함
亂世最吉詳之地
061)867-287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80번종점
• 평수 : 45평
• 가격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 일천만원(최상급)
016)296-5833
017)551-1480

사찰 안내
•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뚜렷하며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법당, 방 8칸, 주방 되어 있고 천탑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자금관계로 매도
• 대불사 이루실 분 환영
018)223-2101

토굴주택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442번지, 무량사에서 10분거리
• 대지 : 90평 • 건물 : 15평 (방 5개, 보일러, 세면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1,200만원
• 스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음
011)541-9457
041)836-8256

원룸 안내
• 영도 신선동 총 13실
• 7실 현재 임대수입 발생 중 (월 수 2백만원)
• 실인수 1억 1천
• 6실 (현 신축 중 - 예상임대 수익 월 170만원)
• 실인수 7천
018)280-8766/018)520-8818
(주) 한마음 건설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불교 이래서 좋다

홍현정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문화사업부

"어려움 극복하는 힘 키워줘"



나는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TV 드라마나 역사극을 통해 간접체험을 하는 것 말고 불교를 접해본 적이 없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에서 일을 하며 불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수행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불교에 대한 좋은 점을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청소년과 불교의 관계맺기에 대한 말부터 할까 한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한다. 자연체험활동,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잦은 접촉을 가진다.

청소년들은 성장기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꾸는 세대이기에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접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능동적인 세대이다. 반면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모님과의 의견차이, 또래관계의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음주, 마약, 인터넷 중독, 흡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여러 가지 청소년 일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교를 믿는 청소년들은 어딘가 다르다. 불교라는 종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자기수양을 통하여 힘든 시기를 극복해나가는 불자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때 불교의 힘이 느껴진다.

불교는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정서이기에 담아내기에 따라서 현대의 청소년들과 만났을 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나는 불교 청소년단체의 일원으로서 청소년과 불교를 이어주는 좋은 중매자가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져본다.

담배를 끊읍시다

금단현상 극복법

①금연 후 가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따뜻한 차(녹차), 물을 마시면 가래가 잘 배출된다. 참기 힘들면 객담 배출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②입안 혀 등이 헐고 몸살이 난 것 같다. 이것도 금단증상인가?

금단증상은 일단 니코틴에 익숙해진 신경계가 금연으로 인해 니코틴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반응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금단증상은 일종의 신경계의 증상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용어다.

③불면증이 너무 심한데.

불면증은 금단 증상의 한 가지이며 초기에 생기는데 2~3주 이내에 좋아진다. 낮잠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시간에는 커피를 피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④금연 후 배가 나온다. 왜 그럴까?

일반적인 경우 3~5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올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니코틴 금단 증상과는 무관하지만, 금연 후에 몸의 대사활동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⑤금연 직후 자꾸 졸음이 오는데.

담배에는 어느 정도의 각성효과를 내는 물질이 있다. 금연을 하게 되면 이에 동반해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다.

몸의 대사변화로 체중 3~5kg 증가

"얍" 당찬 기합소리 법당 가득

어린이들 개운사서 '금강선무도' 배우기 한창



◇'얘들아! 선무도 하고 놀자' 어린이들의 몸짓이 제법 진지하다.

양익 스님 창안, 관법 이용한 불교무술

"포교에 활용… 대중 · 생활화에 노력"

"얍!" 기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진다. 도복 허리춤에 묶여진 제각기 다른 색의 띠들. 절도 있는 동작들이 눈길을 끈다.

3월 31일 서울 개운사 금강선무도 법당. 30여 평이 채 되지 않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금강선무도를 배우는데 한창이다.

금강선무도를 8개월 째 배웠다는 승미(유현초2), 갓 들어온 용원(상도중2), 연강(계남초3) 남매가 어설픈 동작으로 따라하자 기다렸다는 듯 핀잔을 준다. 잠시 후 관장 광원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광원 스님이 어린이 선무도 법당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광원 스님은 10년 넘게 수련한 선무도를 어린이법회에 활용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선무도가 뭔지 몰라 태권도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선무도는 불교전통무술이라고 말해주었지요"라고 말하는 광원 스님은 "앞으로 금강선무도를 대중화, 생활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강선무도'는 밀교의 관법을 응용한 전통불교무술법이다. 1970년대 부산 범어사 양익 스님이 창안한 것으로 호흡법을 통한 선체조, 선기공, 선요가 등 다양한 수행법을 포함하고 있다.

금강선무도는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눈에 띄게 바꿔 놓았다. 덜렁댄다는 지적을 받았던 승규(종암초4). 어느 정도 선무도 동작이 몸에 배면서 무척이나 차분해졌다고 광원 스님이 귀띔을 한다. (02)926-3181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스카우트' 지역단 창단

부산 동명불원서 6일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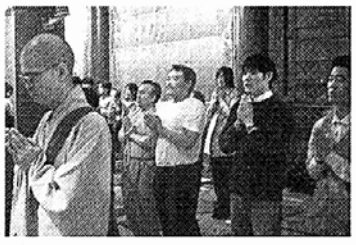
불교학생회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스카우트' 지역단이 창단돼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동명불원에서는 모험과 봉사의 스카우트 정신과 훈련법이 불교와 만나 창단된 제2546단 대불지역단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유아대인 비버스카우트, 초등학교 유년대 컵스카우트, 중학교 소년대 스카우트, 고등학교 청년대 벤처스카우트, 18~25세 청년을 위한 로버스카우트에 이르기까지 5개 단위대 60여명의 지역단이 꾸려졌다. 대자연속의 단체활동이 이루어지는 스카우트 활동이 불교의 심성계발과 접목되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대불지역단은 5월 동명불원에서 야영 체험과 선서식을 갖고 7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페트롤 잼버리에 참석, 불교 의식 집전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불교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불지역단 창단을 계기로 주목 받고 있는 불교스카우트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도자 양성과 지역대 활성화. 이를 위해 대불지역단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5~60명의 불교스카우트 지도자들과 연계, 신도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활동하는 통도사부산포교원 선재지역단을 비롯 범어사, 관음사 등에 새로운 지역단을 만들어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고 2003년에는 불교스카우트 연맹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불교와 스카우트의 만남은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과 김종원 스카우트 부산연맹 훈육위원장의 철저한 준비로 성사됐다. 김종원 대불지역단 위원장은 "대불지역단 발대식을 계기로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월드컵 성공기원 3천배 정진법회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3천배 용맹정진 법회가 3월 3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사진). 종단협의회와 조계사가 공동 주최하고 조계사 청년회, 대학생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에는 불자 가수 김흥국 씨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늘 노력하고 정직해야 하는 불교수행과 스포츠 정신은 서로 직결되어 있다"며 "불자들이 앞장서 국가적 큰 행사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가수 김흥국 씨는 "월드컵 유치 기원 2002배 정진했었을 때가 새롭게 느껴진다"며 "불자 모두가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1부 입제식을 마친 청년 200여 명은 이어 3천배 정진에 들어가 원만히 회향했다.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천불동

국내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 10년이상 축적 불교자료 제공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신행단체', '불교자료의 보고'

이는 천불동에 따라다니는 애칭들이다. 천불동은 마치 인드라 그물과도 같은 인터넷에서 많고 많은 부처님(千佛)이 함께 어울리는 곳, 관세음보살의 천눈천손(千手千眼)의 들음과 사랑이 세상에 두루 전하길 염원하는 네티즌 신행모임. 1991년 9월 데이콤 천리안의 전신인 'PC-Serv'의 불자 동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천불동은 이후 '천리안 불교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신행활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신행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천불동'으로 개명해 홈페이지(www.buddhasite.net)를 개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청정한 생활, 나누는 기쁨, 참다운 세상 구현'을 모토로 여법한 신행공동체를 향한 제2 도약에 나섰다.

천불동이 피시통신을 벗어나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행단체로 변모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피시통신은 가입을 해야 하는 폐쇄적 공간이라 10년이상 축적된 불교자료를 일반 네티즌들이 볼수 없었다. 그래서 천불동은 이같은 방대한 불교자료들을 전체 네티즌들과 공유하고 아울러 회원배가운동을 알리기 위해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천불동' 홈페이지 초기 화면.

천불동 홈페이지는 장경각, 너른 법판, 공부도량, 묻고답하기, 방송국, 오순도순, 영산회상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불교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비불자네티즌들에게도 불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지구촌 난민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기부사이트인 힝거사이트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운동은 불자 네티즌들이 천불동 홈페이지를 방문해 '돈 안들이고 좋은 일 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기업의 구매광고를 보게 되고, 이때 광고료 명목으로 '쌀 한 컵'을 지원받아 기아 난민에게 기부된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입부는 달이고 입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입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붓기가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걱정 없어집니다.
• 간폭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폭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모든 대체요법가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일만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워니 워니 해도 레이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우주생명 에너지 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 라는 비법이 있어서 여러해씩 기공수련을 해야 하는 기공과는 달리 즉각 누구나 우주 생명에너지 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의 가장 과학성 높은 선문화 체계로 자리잡혀 있는 레이키는 모든 대체요법가(침뜸 전문가, 지압사, 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아로마 요법가, 활법사, 골격조정가, 발반사 요법가, 단식원 운영자, 기공 치료가, 생식 요법가, 심령 상담가, 최면요법가 등)가 갖춰야할 기본 능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대체 요법가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생명에너지 바로 레이키입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체계세운 방법이 미국, 일본 등의 레이키 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貴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는 건강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 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 입니다.
3. 저(박희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20년간 건강분야,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6년 부터 일본등에서 레이키를 만나 여러 갈래의 레이키를 폭 넓게 배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선생)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고 1997년 부터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대표 박희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꿈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지이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한경 (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전강 학인 모집공고
圓照 覺性 대강백께서는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백양사, 은해사, 금산사에서 20여년간 강주를 역임하시고, 서울 부산에서 재가불자에게 불교, 유교, 도교 경전을 강의하셨으며, 동국역경원 번역위원과 증의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통화총서13집(대도직지, 천부경,중용직지, 유식론, 대승기신론,능엄경정맥소현시,화엄경론회석등등)을 발간하셨다. 큰스님께서 말년의 회향으로 역경, 포교, 도제양성 3대 불사들 목표로 하여 전강 받을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 집 인 원 : 30명
■수 업 년 한 : 2~4년
■수 업 과 목 : 동양고전과 불교학전반 및 강원 이력과목에서 선정함
■지 원 자 격 :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 원광대불교학부을 이수한 자 및 유교 사서를 수학하여 한문에 능통한 자이면종단과비구.비구니를 불문하고 지원 可함
■제 출 서 류 : 승적사본,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수행이력서
■원 서 접 수 : 불기 2546(2002)년 4월 29일 ~ 5월4일까지
■전 형 방 법 : 서류심사. 면접시험
■면 접 일 시 : 불기 2546(2002)년 5월 8일 오후 1시 부산 화엄사
■합격자 발표 : 불기 2546(2002)년 5월 10일(개별통보)
■대 우 : 숙식만 제공함
■문의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 전화 (051)324-0590
화엄학연구원 통화불교전문연수원



◇해남 대둔사는 오는 26~28일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시범 사찰프로그램 '새벽 숲길 2002'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중 하나인 '스님과의 대화' 시간.

대둔사, 주5일제 대비 수련프로그램 마련

'새벽 숲길 2002' 실시

26~28일 시범운용…초파일후 월1~2회

일반인도 참가… '사색·성찰' 기회제공

상설 수련원 개방 묵언·좌선·다도익혀

불교계가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포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찰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는 26일부터 28일까지 '새벽 숲길 2002'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 부처님오신날 이후 매월 1~2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새벽숲길 2002 계획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상설수련원 시설을 개방하고 묵언, 숲길 산책, 스님과의 대화, 다도, 좌선, 진리의 말씀 독송, 수행일기 작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사색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산사 체험 위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좌선, 108배 등 육체적으로 힘든 프로그램은 최소한도로 편성하는 대신 숲길 산책, 수행일기 작성, 스님과의 대화 등 산사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수련비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불전함에 보시하도록 했다. 또 2박3일 동안 참여하지 못할 경우 1박2일간의 참여도 가능토록 하는 등 기존 수련회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문의 (061)535-5775, 대둔사홈페이지(www.daedunsa.org)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5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노부호 서강대 교수가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을, 법인스님(대둔사 상설수련원장)이 '전통사찰의 대응방안'을, 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이 '도심사찰의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와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보광사 주지 일문스님이 나설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조동종 창종위 발족…위원장 학봉스님



한국 조동종은 3월 29일 총본산 창종 설명회를 열고 창종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에 학봉스님(원효사 주지)을 선임했다. 이날 조동종 선학연구원장 금당스님의 조동종 원류에 대한 강의와 현판식이 열렸다. 한국 조동종 총본산은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창종될 예정이다. 학봉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륵종 열반재·보살계 수계법회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7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종단스님 및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3주년 기념법회와 부처님 열반재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진표율사를 종조로 미륵 10선법을 널리 포교하여 중생구제에 모든 종도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화합원칙 조직정비 역점"

설운스님, 태고종 경기북부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6대 경기북부 종무원장 설운스님(사진) 취임법회가 3월 31일 양주 기원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운산 총무원장을 비롯 경기북부종무원 산하 각사암 주지 및 교임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설운스님은 "종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화합의 원칙 아래 종무원을 운영하겠다"며 기간 조직의 정비와 종도들의 화합을 종무원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태고종 서울 경기 종무원

조직·직제 대폭 강화

태고종 총무원 직할교구로 있는 서울과 경기 7개 교구종무원이 지방교구 종무원과 같은 직제와 조직을 갖춘 종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태고종은 3월 22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간부연석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지역은 그동안 종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면서도 총무원 직할교구라는 지역과 조직특성 때문에 종무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직과 직제를 지방교구 종무원과 같은 규모로 구성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게 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태고종 서울 경기지역 7개 교구 종무원들은 지방종회와 지방호법위원회를 6월까지 구성,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삼광한글학교 개교10주년 법회에서 도원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광한글학교 개교10돌

3일 기념법회, 94년이후 1033명 수료

92년 4월 2일 개교해 문맹퇴치와 한글보급에 큰 역할을 해온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삼광한글학교가 3일 지관전에서 개교 1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10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삼광한글학교는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읽는 기쁨을 주는 노인복지의 장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날 도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삼광한글학교를 통해 배움을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중국 소림사 모형사찰 일산 호수공원에 건립

중국불교선종의 개조인 달마대사가 득도한 곳이자 소림권법의 발상지인 중국 소림사가 경기도 일산에 세워진다.

중국 소림사 스용신(釋永信) 방장이 3월 31일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한 자리에서 "중국의 소림사와 같은 모형의 절을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주)정무문 엔터테인먼트의 나광훈 사장도 "일산 호수 공원 인근에 2만여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차이나타운 옆에 1만여 평 규모의 소림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소림사는 중국의 전통 무술 '소림권법'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각종 문화 이벤트를 통해 한국과 중국 불교의 교류와 이해를 모색해 나갈 것이란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목탁소리

'스스로' 부터 정화해야

강 유 신 (취재1부 기자)

3월 16일부터 사찰생태환경 모니터에 들어갔던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가 지난 3일까지 조사된 11개 사찰의 환경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서 산림훼손 불사, 해우소 오물 유출 등 사찰이 자연환경을 해쳐온 사례가 실제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사찰들의 환경파괴 사례가 종종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들 사찰에서 나타난 환경파괴 사례가 예측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11개 사찰이 환경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을 가진 '큰 사찰'이라는 데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불교계가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보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불자들이 받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불교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가 가능했던 것은 불교적 삶이 곧 친환경적인 삶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연일 교계 신문과 일간지 등 방송매체를 통해 불교계의 환경수호 의지가 알려지고 친환경적 종교로서 불교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11개 사찰의 환경파괴 사례가 밝혀짐으로서 불교계는 '스스로'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재일 소장은 "사찰환경이 상처를 입는 것은 외부의 파괴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불사를 거침없이 하는 등 스스로의 자해도 한 원인이 된다"며 일침을 놓았다.

사찰들 역시 단시일 내에 완벽히 환경보호 시설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찰에서 나타난 환경파괴 사례는 환경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게시판

▲'함께하는 우리' 행사=강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4주년 및 장애인 날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란 주제로 17일 오전 11시 30분 기념행사를 갖는다. 전통놀이 마당, 바자회,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989-4215

▲치매중풍 이동 상담=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0일 오후1시 30분 성북구 돈암동 한신팔각정에서 치매, 중풍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간이치매 검사 및 예방 체조와 교육 등도 마련됐된다. (02)929-7950

▲북녘동포돕기 거리모금 행사=청년정토회는 20일 오후4시부터 명동성당 일대에서 북녘동포돕기 거리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02)587-8996

▲늘푸른 교실=삼전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저소득 여성가장(및벌이) 가정 내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한다. (02)421-6077

▲이전=통합불교 아미타종은 최근 총무원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7-28호 승허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02)514-4175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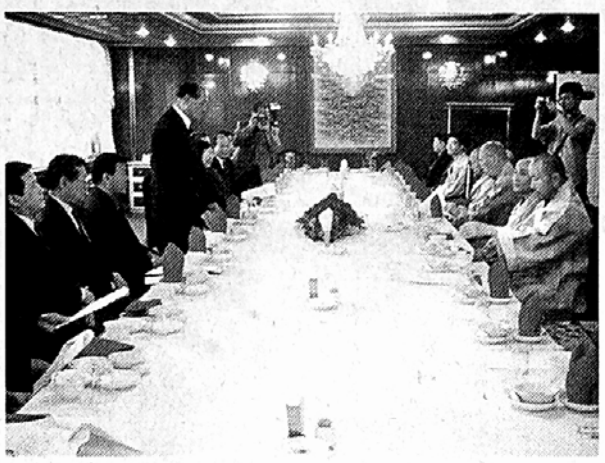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힘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측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 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감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케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봉행 청화 큰스님 초청 봉행
춘계 합동 천도재
백련산 신흥사에서는 곡성 태안사 조실이신 청화 큰스님을 모시고 춘계 합동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영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업장 소멸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입재 - 2002년 4월 11일 (양) 목요일
회향 - 2002년 5월 2일 (양) 목요일
불교 교양 대학 개설
▷ 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10시 -12시
▷ 내용 : ①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② 법화경 독송 및 강의 ③ 사군자 및 생활 역학 - 김부자 (토)] 성광 혜인스님(목)
2. 장소 : 서대문구 홍은3동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TEL 02)395-1222 , 3216-2036
3. 교통 : 전철 -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 10번 마을버스 → 종점 → 신흥사
버스 - 8, 59, 522, 74, 806(정원여중하차 도보 10분)
홍제역 통과 버스는 모두 가능함 → 마을버스 10번 연결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성광 혜인 합장

"신도운동 활성화에 앞장서자"

정대 총무원장·신도연합단체장 첫 간담회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등 조계종 종단간부스님들과 백창기 중앙신드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신행단체장들간의 간담회 모습.

"종단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승속이 하나 돼 신도운동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조계종등록 신도연합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부장급 간부스님들과 14개 신행단체 대표등 30여명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도들이 종단현안을 공유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공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대스님은 이날 "신행단체가 살아야 불교가 잘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올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의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행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신도단체들의 운동방식은 이웃 종교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다. 한국불교신도운동도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며 "종단차원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도단체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종단, 청년층 중심 포교활동 지원"

"주지임명때 포교성과 반영시키길"

스님은 이어 "종단의 분규로 많은 불자들이 실망하고 다른 종교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종단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대다수의 스님들이 시대의 변화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급진적 개혁방식이나 종단에 손해를 입히는 문제해결 방식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단체장들의 인사말, 종무현황 브리핑, 신도단체 종단건의 사항 등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이런 소중한 간담회에서 종단현안에 대한 출·재가 대중간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져 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홍 포교사단 부단장은 "사찰 주지스님들의 포교성과를 주지 임명시에 참작토록 해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2시간에 거쳐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신도단체들은 이날 모임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중앙신도회와 총무원 기획실을 중심으로 정기 간담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어려움 겪는 군법당중창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타종교인 1억상당 토목공사 지원불구

모연·종단·지역사찰 후원 여의찮아

육군 맹호부대 호국연호사가 천주교 신자인 부대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법당 중창불사에 나섰으나 불사금 모금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국연호사는 지난 3월 108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위해 총 3억 9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77년 35평 규모로 건립된 현 법당이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비좁아 법회 진행 등 신행공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

불사비 조달은 부대장을 포함해 간부불자들이 5천여만원을 조성하고 불교계 종단과 인근 지역사찰의 모연금, 불자 및 불교단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부대장은 타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토목공사를 부대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등 중창불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인근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도 불사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호국연호사 정윤성 주지법사와 맹호부대 간부불자들은 매일 아침 108배 기도 등 정진에 들어가는 등 중창불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불교계 종단과 지역 사찰, 불자들의 후원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호국연호사 정윤성 주지법사는 "타종교인 부대장과 봉선사 등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불사금 모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 군불자들이 여법한 여건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후원계좌 농협 227050-51-182458 (예금주 7021부대)

박봉영 기자

'북한산도로' 현장 다시 긴장감

의정부지법 "농성장 13일까지 철거…불응땐 강제집행"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농성장이 위치한 의정부 송추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집달관을 회룡사로 보내, 13일까지 의정부 송추 농성장 법당을 철거하라는 법원 행정명령을 전달하고 불응시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룡사 비구니 스님들과 불교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회원 등은 송추에 모여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송추현장에 있는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강제 집행이 있을 경우 스님이 다치고 법당이 훼손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3일부터 전국 200여 사찰에 사찰수행환경 수호 및 자연보전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봉선사, 수덕사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9일 의정부 송추현장을 방문 격려한다. 강유신 기자

고속철 금정산관통 "불가"

대책위, 건설본부장 "노선변경 곤란"에 단호

고속철 관통 반대 상임집행위 도관스님, 원타스님, 내원사 교무 도경스님 등은 3월29일 범어사를 방문한 고속철공단 강재열 건설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고속철의 금정산 통과는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심각한 수행관경 파괴와 금정산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금정산 관통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재열 건설본부장은 "건설과 환경은 상충되는 면이 많아 어느 한쪽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현재로서는 노선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금정산 고속철 통과 저지를 위한 범어사 대책위원회는 3월30일 방송홍보단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13일에는 시민들과 불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범불교도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군법당·교도소·양로원등 자비의 선물 보내기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과 조계사(주지 지홍)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선부대 군법당과 교도소, 소년원, 양로원 등 소외계층에 자비의 선물을 전달한다.

포교사단은 이달 20일부터 2만개의 자비의 선물을 제작, 내달 1일부터 포교사단 군포교팀과 교도소팀 등의 포교사들이 직접 자비의 선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비의 선물 꾸러미에는 빵, 과자, 음료 등 먹거리와 포교용 소책자, 합장주, 봉축 캐릭터 등 포교용 소품이 담겨진다.

6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제작비는 조계사와 봉축위원회, 포교사 모연, 거리 모금, 불자 후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25-0012-628 (예금주 포교사단)

박봉영 기자

지하철 포교 전국시대 '활짝'

풍경소리, 인천 지하철역 게시판 설치

3년만에 서울·수도권·부산 등에 자비말씀

인천 지하철에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설치됨에 따라 지하철 포교 전국시대가 열리게 됐다.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3월 27일자로 인천지하철공사로부터 포교게시판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든 구간에서 자비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풍경소리는 승인 조건에 따라 인천지하철 소속 22개역 중 10개역에 대해 1일 설치를 마쳤으며, 12개 역에 대해서는 10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설치 승인을 받고도 주변 사찰의 협찬이 없어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역에 대한 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풍경소리는 99년 9월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460개 역에 자비의 말씀을 게시한 이래, 3년만에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철도청 소속 모든 역사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이번 인천지하철 포교게시판 설치 승인은 지하철 포교가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주변 사찰과 불자들이 설치가 늦춰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충북대 불교학생회 불상 훼불

낙서·십자가 목걸이 그려져

충북대 불교학생회(회장 박승용)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 오전 동아리방을 찾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동아리방에 봉안된 불상에 낙서와 함께 매직으로 십자가 목걸이가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승용 회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학내 소행으로 밝혀지면 동아리연합회 차원의 제재도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국민 절반 이상 매장보다 화장선호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사)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가 전국 성인남녀 1천1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장묘문화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장례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52.3%(621명)를 차지, 매장 선호자 32.9%(391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납골묘 조성과 관련, 절대 다수인 78.1%가 찬성해 9.7%의 반대 입장을 압도했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장혁 기획간사는 "불교계에서도 화장과 납골시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화장률 및 납골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도 교계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기자

쓰레기 Zero 1080운동

1080명 모아 1천일간 진행

불교환경교육원(원장 유수)이 1천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제로 1080운동'에 나선다.

불교환경교육원은 1일 서울·대구·부산 등 6대 도시에서 쓰레기 배출현황 조사 및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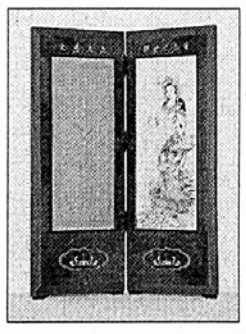
이를 위해 불교환경교육원은 △일반인, 가족 대상의 환경교육 △투명망·방수망 사용 및 쓰레기 발생량조사 등 시민실천운동 △포스터제작 배포, 방수망 제작 등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범국민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연중 전개할 방침이다. 쓰레기제로 1080운동은 회비를 10800원씩 내는 회원을 1080명 모아 앞으로 1천일 동안 걸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쓰레기제로 1080실천단'이 3월 17일 구성됐다. 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사무국장은 "1회용품과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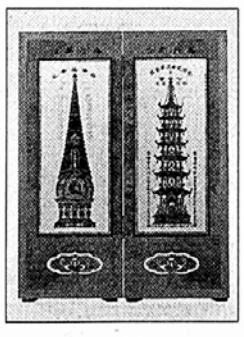
한편 불교환경교육원은 5일 서울 방배동에 생태환경교육장인 '땅살림생태교육장'을 개원했다. 땅살림생태교육장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 연구 △습지생태계 조성 및 복원방법 연구 등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02)587-8997 강유신 기자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시는 사천왕 4분을 모신"

사천왕(四天王) 병풍



⊙ 사천왕이 모셔진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사찰이 나날이 번성한다 하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사찰내에 모셨으면 하고 원하시던 사천왕이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영구적으로 편리하게 모실수 있도록,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하여 성품(聖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포교당이나 작은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모시기가 적절한 규격으로 조성되었사오니 이번기회에 사천왕 네분을 모셔 보십시요. 원력을 세우신 스님께는 큰 도움을 주실것이며, 스님의 신도들을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심(佛心)을 더욱 깊게 넣어주시어 도량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실것입니다.
현재 본 사천왕 병풍을 보신 신도들이 자신의 공덕을 짓기위해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사천왕 병풍을 보시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고있습니다.

특징
① 법당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②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네분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시어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 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융걸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으로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자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병원장(일산) 초빙!

의대·한의대부속 불교병원, 마침내 오는 5월 완공! 12월 개원!



3호선 원당역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10분거리

셔틀버스 운행!

최고 수준의 양 · 한방 종합병원 , 동국대학교 의대 · 한의대부속 불교병원이
마침내 오는 5월 완공, 12월 개원합니다.
강북최대 1,000병상에 최첨단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춘 아름다운 불교건축물로,
일산 식사동의 최적한 환경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게 됩니다.
세계최고 의술의 혜택을 환자들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첨단정보화 시스템,
대기시간이 가장 짧고 보호자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환상적인 서비스,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는 선(禪)센터 등 ……
동국대학교 참사람 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소재
- 연면적 30,0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 강북 최대 1,000병상
- 첨단시설, 정보화 시스템

병원장, 교수, 전임의, 직원을 모십니다!

●병원장 초빙

- 초빙인원 2명(의대 부속병원장 1명, 한의대 부속병원장 1명)
- 자 격
  - 병원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춘 전문의로인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관련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본교 건학이념에 충실하실 분
  - 교육공무원법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의료원장급 및 병원장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교원임용지원서(본교소정양식) 3부
  - 자기소개서 3부
  - 전체 연구실적물 목록 3부
  - 임용후 수행할 병원 운영계획서 3부
  -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등) 각 1부
  - 의사(한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기간 2002. 4. 15(월)~4. 18(목) 17:00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임용예정일 2002. 4월중

기타 공통사항

- 임용예정일 : 2002. 3월 예정 (임상과장급 개원준비직원은 조기에 임용될 수 있음)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함(* 필기시험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이비는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후 초빙 및 임용예정자는 개별통지(단, 직원은 인터넷 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터넷 이용자는 홈주소 www.dongguk.edu 또는 www.dumc.or.kr에 접속하면 초빙공고문 및 임용지원서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음

●교수(임상과장급 및 임상교수)초빙

- 초빙인원 의학과 00명, 한의학과 0명

학 과	초 빙 분 야	초빙인원
의학과 (임 상)	내과(소화기, 호흡기, 간분기, 내분비, 신장, 혈액 각1), 소아과(신생아계, 호흡기계, 신경계, 혈액종양계), 신경과, 정신과(일반정신과, 소아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위장관계, 대장항문계, 복부내분비계, 유방계), 흉부외과, 정형외과(척추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 및 견관절), 신경외과(뇌혈관질환계, 척추신경계), 성형외과, 산부인과(산과계, 부인종양계, 불임계),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일반마취, 통증), 진단방사선과(소화기영상계, 비뇨생식계, 신경계, 근골격계, 심장혈관계, 유방계),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과(임상병리학, 임상혈액학 및 면역혈액학, 혈액학 및 혈액은행), 대구방사과(영상진단학 - 복부영상학, 폐흉부학), 기생의학과, 응급의학과, 핵